

보육활동의 결집이

우리네 아이들

96.10

저/역/사/의/특/약/△/연/접/의

서울시 중구 정충동1가 38-84 여성평화회 집 3층 (우) 100-391 ☎ 02)275-8505~6 FAX 275-8506 ID:GTYID(천리안)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보, 어디서 얻습니까?”

정보 제공

- PC통신에 '어린이집·놀이방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시설 홍보

- 현재 전국의 5천여개 어린이집, 놀이방이 PC통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보내주시면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에 광고해 드립니다.

교사 알선

- 선생님을 구하려는 시설과 보육사업에 함께 하실 예비 선생님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로 직접 신청하거나 PC통신을 이용하여 원하는 분들을 만나십시오.

연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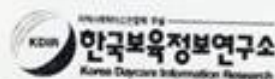
- 보육사업의 전문 영역 연구와 정보개발을 통해 더 나은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정책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놀이방 정보이용

- 천리안 : GO BABY
- 하이텔 : GO BEBO
- 유니텔 : GO BEBO



본 화면은 하이텔 제공 예입니다.



서울 중구 독정동 18-27 대우문화빌 426호 · TEL: 02)268-3954/271-1547~8 / FAX: 02)271-1548 · ID: KDIRBEBO(하이텔) ZPIBABY(천리안)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6.10

자/역/사/외/특/여/△/연/업/외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75-8505~6 FAX: 275-8506 ID:GTIID(천리안)

우리네 아이들

96.10월호

<통권 44호>



<표지사진>

옷이 좀 더러워지면 어때, 손에
흙이 잔뜩 묻으면 또 어때...
그렇다. 맘과 흙먼지로 뽀뽀하
원 아이의 얼굴과 그 안에 가득
번진 맑은 웃음, 그 자체가 행복
이고 기쁨이리라.

(사진 / 이주영)

입아머 생각머 / 3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그런 아이를 키우고
싶다 김영자

성교육 / 5

부모 성교육을 위한 제안 및 실천 자료 정희연

새날을 연 사람들 / 19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공간 김미영

부모교육 / 25

기쁨과 희망을 주는 그림책 오윤정

지상강연 / 33

유치원 1년 무상교육에 대하여 송대현

보육행정 / 35

중앙보육위원회에서 무엇이 다루어졌나 편집부

좋은 그림책 소개 / 45

눈오는 날 오윤정

건강하게 삽시다 / 47

이런 아이의 똥에 대하여(2) 어린이건강교육연구회

짜·임·새

연장소식 / 54

편집부 동근나라어린이집의 어린이문화 만들기

작은 기억 / 55

편집부 열쇠 따르릉 전화

육아일기 / 61

나은미 배꼽이 떨어졌어요

세상일기 / 63

편집부 교사로서 나는 부끄럽지 않은가

책아스별곡 / 65

전달래동산에서 있었던 일

오빠들의 목소리 / 67

임사용 『짱아 짱아 배짱아』를 보던 날

대재원 새 출발, 그리고 한달

보육계풍망 / 70

소식과 소식 / 75

편집부에서 / 79

1996년 10월호(통권 44호) / 첫발행
1992년 5월 25일 / 제1호 지역사회의
아소연합회 / 제1호 남미영 / 문은이
박정애, 강예란, 박은하, 정순옥, 황미혜
/ 제1호 1996년 10월 4일

일이며 생각이며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그런 아이를 키우고 싶다

김영자 / '땅을 지키는 모임' 생활협동조합 실무이사

매장에서도 가끔 다툼은 있다. 물건을 사는 사람과 물건을 파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실경이는 생활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의 우리 매장에서도 비껴갈 수 없는 문제이다. 어쩌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이 예외일 수는 없을 터.

생활협동조합이 뭐냐고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할 때는 언제나 어떤 막막함이 있다. 한 살림 초기시절부터를 치면 햇수로 10년이 다 되어가는 마당인데도 나는 아직 '생활은 이런 곳입니다'를 자신있게 말하지 못한다. 그냥 함께 하는 거라고...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함께 하는 거라고 밖에는...

구체적으로 물건을 공동으로 같이 구매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직거래니까 생산자도 알 수 있고 물품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 생활을 그런대로 이해하고 가입을 하지만 그 역시도 개인의 이기심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설득이 불가능하다. 다같이 사면 싸니까. 집에 앉아서 공급(배달 : '공급'이란 생활 용어로 '함께 나누어 쓴다'는 뜻이다)받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을 어떻게 믿습니까... 등등.

이웃과 함께 해야만 돌아올 수 있는 개인의 이익, 설명할 때마다 설명 듣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오가는 계산 등은 대개 그런 것들이다. 어쩌면 생활의 실무자를 맡고 있는 나 자신도 공동의 이익보다는 내 자신의 이익들을 더 꼼꼼히 따져보았던 건 아닌지...

생활 활동을 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가사일만 하기를 바라는 남편의 외조에 힘입어서이다. 고등학생인 딸아이는 이미 부모의 통제를 귀찮아 하는 덕에 낮시간을 온통 생활에 매달리긴 하지만 생활의 먹거리는 촌스러운 남편의 입맛에 맞기 때문에 다른 불평을 하지 않는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사회가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남편으로서도 좋았던지 우리는 예전에 없던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처음 생활을 소개받았을 때 받았던 신선한 충격은 이후 내 생활에 참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내게 있어서 생활은 우선 의의가 좋았다. '환경을 살리는 데 일익을 담당한다'는 명분

도 그럴싸했고 딸아이에게도 의식있는 엄마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솔직히 환경을 살리는 것은 아니다. 무독성 세제를 쓴다고 해도 환경을 지금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가게에 무리가 가는데도 고집스럽게 유기농을 하시는 생산자를 돕는 뜻에서 그들이 생산한 못생긴 채소, 기형적인 과일을 사먹으면서 농약에 찌든 땅을 살리고 수입농산물을 이기는 경쟁력있는 농업을 만든다는 사실에 뿌듯함이 있었다.

물론 가족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보람이다. 가족에게 농약을 먹이지 않겠다는 결심이 없었다면, 어떤 식품에 농약이 얼마나 들어가고 내 아이가 그렇게 맛있게 먹는 포도에 독성 농약을 10번 이상을 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농약이 몸 안에 쌓여 어떤 병을 어떻게 만드는지 겁을 먹지 않았다면 나 역시 이렇게 비싼 유기농산물을 먹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다.

비싸다는 것은 흠이다. 그러나 가격의 문제는 다같이 해결할 수 있지만 죽은 땅이나 그로 인해 병든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잘 모르지만 생활법이 생기면 유기농을 하는 생산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생산가가 낮아질 수 있고 또 일반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가격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수준에서 유통이 확대될 수 있어 생활 물품도 부담없이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좋은 식품,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고 검증하는 소비자들의 역할,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생활도 사람이 사는 곳,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있다. 하지만 사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자녀문제 역시 그렇다. 자녀가 학교에서 겪는 문제들, 교육 전반의 문제들을 아무리 자녀를 위하여 학교선생님과 의논해도 나 혼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아이들을 밖에 내놓기 불안한 사회에서 그 아이에게마저 사회를 그저 남으로만 여기게 하고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곳으로만 여기게 한다는 것은 그 아이의 미래마저 어둡게 하는 일이다. 문제가 있으면 다른 학부모들과 같이 의논한다. 학교운영위에 참가해서 학교 재단의 횡포를 막는 것도 여럿이 모였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방법을 아는 그런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지만 내 아이만은 경쟁에 지치고 그래서 불안한 그런 아이가 아니었으면 한다.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개인, 사회 속의 개인에게 생긴 문제라면 사회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혼자서 못하는 일을 여럿이 할 수 있는 곳(협동), 욕심보다 나눔이 있는 곳(공동체), 나와 우리가 있는 곳(공동체), 그곳이 생활이다.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있는 곳이다. 내 가족과 나 자신을 위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우리 사회를 아름답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일테다. 사회의 이기가 개인의 이기와 부합될 때 나와 사회의 발전, 개인의 자아 실현은 생활과 협동을 모토로 한 자유로운 공동체 속에서 구현될 것이다.

성교육

부모 성교육을 위한 제안 및 실천 자료

정희연 / 본회 전 부회장

이 자료는 본회 전임 부회장이었던 정희연님이 이번 영국 유학 중에 파제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1부는 부모교육용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이며 2부는 부모교육용 자료입니다.

1 부

1. 머리말

“남자 색깔, 여자 색깔이 따로 있나요?”

어느날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내 아들이 내게 던진 질문이다. 그럼 그리는 시간에 친구에게 “넌 항상 여자 색깔만 좋아하더라. 넌 아마 여잔가봐.”라고 놀림을 당했던 모양이다. 그때 아들의 나이는 4살이 채 안되었다. 나와 내 남편은 되도록이면 남자, 여자 구분을 안하고 키우려고 노력해왔다. 특히 우리는 아이가 성역할 고정관념에 얽매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의도적으로 미술시간에 남자 여자 색깔 구분을 해가며 아이들을 가르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이런 사고를 어디서 배우게 되는 것일까? 정말 남자 색깔, 여자 색깔은 없는 것일까? 이 에세이는 이러한 나의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색깔은 오직 색깔로서만 존재한다. 거기에는 어떠한 성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위를 잠시만 둘러보면 현실에서는 이 명제가 꼭 맞지만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성에 의해 구분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의 원복 색깔이 남아 여아에 따라 빨강과 남색으로 구분되는 차라리 전

부한 예가 될 것이다(A.Oakley는 “남자나 여자 혹은 소년이나 소녀가 된다는 것은 특정 성기를 가지고 태어나 그에 따라 성이 구분되는 것만큼 옷차림이나 직업, 사회적 네트워크, 성격의 기능에 의해 좌우된다.”고 했다).

아이들의 주위에 있는 어른들은 대부분 성에 따라 아이들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있다. 아이들은 능동적인 learning agents이다. 아이들의 성역할 행동은 비단 어른에 의해 서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그들 스스로 어른들의 성역할 고정적인 행동이나 자세를 관찰, 모방하면서 배우기도 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매우 어린 나이에 그들의 성정체성을 깨닫는다. 이 시기, 부모들은 아이들의 성역할 발달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존재이다. 특히 아이 양육의 주책임을 맡고 있는 엄마의 경우 딸이나 아들이나에 따라 다른 기대치를 갖고 있다면 그 영향은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엄마의 기대와 행동은 어린 아이들에게 매우 진솔하게 상호교류된다. 아버지의 경우 또한 보통 남아나 여아나에 따라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특히 아버지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형성하는데 있어 엄마에 비해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다. 결국 이러한 부모의 사고와 그에 따른 행동은 남아와 여아가 각기 다른 성역할 발달 과정을 갖게 만드는 결과를 야기한다.

이 자료는 어린이집 부모회에서 아이들의 성역할 발달에 대한 부모교육 자료로 만들어졌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성의 삶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의 삶 또한 그렇게 만든다.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게 되면 좋을까?

아이들의 개성과 그들의 잠재 가능성을 최대화시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성역할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좀더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것이 자녀 양육에 있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아닐까?

2. 몇가지 이론적 배경

1) 무엇이 양성간의 차이인가?

남녀는 정말로 다른가?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아들은 대체로 의존적이고 감성적이라고 한다. 반면 남아들은 상대적으로 공격적이고 독선적이며 활동적이라고 말해진다.

어떻게 이런 차이들을 설명할 수 있을까? 여아들은 선천적으로 좀더 의존적이고 소극적인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배워 왔는가? 남아들은 원래 여아들보다 공격적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몇몇 학자들은 생물학적 성차에서 이 물음의 답을 구하려고 했다. 그러나 M. Mead의 파푸아뉴기니아의 세 부족에 대한 고전적 연구 이후 많은 심리학자들은 양성간의 특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로 문화적 관점을 주장해 왔다.

L. Weitzman은 S. Dem의 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만일 여성 호르몬의 작용이 남녀가 종사하는 직업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설명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구소련 여성들은 다른 나라 여성들과는 다른 어떤 호르몬을 가졌다고 말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구소련의 여성들은 엔지니어의 33%, 전체 의사의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L. Weitzman은 또한 Money와 Ehrhardt의 hermaphrodite(남녀 양성자)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하였다. 그들은 거의 20여년간 몇명의 hermaphrodite 아이들의 자라는 과정을 추적·연구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태어날 때 외양은 남아이지만 신체 내부적으로는 여성 호르몬 구조를 가졌고 유전학적으로 여성일 경우, 그 사실을 모르는 부모로부터 키워진 아이들은 그러한 신체적 특질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자라면서 남아들이 선호하는 놀이감을 선택하고 남아의 놀이들을 즐기며 남아의 옷을 입는 등 결국 성인이 되어 여자와 사랑에 빠지고 남성적 성행동을 그대로 보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외양은 여아이지만 유전형질상으로는 남아인, 위의 사례와는 반대의 경우도 결과는 같았다. 이 연구 결과는 성역할을 결정하는 요인에 있어 '배움'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연구결과로부터 우리는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있어 성에 따른 특정한 기대와 양육행위, 생물학적인 성 차이보다 더 중요하다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성에 따라 특정한 행동을 하기를 요구하고 아이들은 그에 따름으로써 부모로부터 격려받고 보상받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행동들은 강화·발전되는 것이다. 결국 이런 과정은 남아들은 독립적이고 적극적이며 공격적으로, 여아들은 상대적으로 의존적이고 언어적 능력이 월등하며 사교적인 특질들을 배우게 만드는 것이다.

2) 성역할 발달에 관한 몇가지 이론들

(1) 생물학적 접근

이 이론은 유전학적으로 혹은 해부학적으로 호르몬의 차이가 양성간의 각기 다른 특질과 행동을 유발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남자와 여자는 서로 완전히 다른 신체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그것에 따라 심리적 차이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조건한다. 이러한 이론가들은 생물학적 근거에 의해 자연적으로 양성간의 심리적 차이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느냐에 따라 행동방식과 성격과 능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2) 프로이드식 접근

프로이드는 사회적인 요소와 생물학적 양 요소에 의해 남녀간의 성의식 발달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동일시(identification)'를 통해 아이들의 sex typing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이론에 있어 남아가 자라면서 엄마를 독점하고픈 욕구 때문에 아빠를 라이벌로 느끼는 과정에서 남성성이 강화된다는 Oedipus Complex가 주요개념이다. 다른 한편 여아는 아빠를 애착의 대상으로 삼아 아빠의 사랑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엄마의 여성적 행동이나 사고를 따르게 만들어 성 고정관념이 생긴다고 보았다.

(3) 사회 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여기에 속하는 학자들은 Miller나 Bandura 등이 있는데, 이들은 아이들이 그들의 성 정체성, 성역할 선호와 성에 따른 행동들을 직접적 가르침과 관찰자적 배움 두가지 방식에 의해 획득하게 된다고 보았다.

전자는 부모, 선생님, 또래집단과 다른 사회적 agent의 경향이 아이들의 성에 따라 적절하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격려하거나 벌을 주므로써 아이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생겨난다고 보았다. 후자는 성에 따른 특질의 대부분이 동성모델을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획득된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부인하면 이 이론은 사회적 체계로서의 가정과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4) 인식론적 발달이론(Cognitive Developmental theory)

주요이론적 배경은 Piaget의 이론에서 왔다. 이 그들의 대표적 학자인 Kolberg은 아이들에 있어 성 정체성은 인식적 판단인데 이는 아이들의 동성모델에 대한 선별적 주의(attention)를 통해 성 정체성을 얻는다는 사실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주요개념은 남아나 여아나로 자신을 규정화하는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이다.

(5) 성 도식이론(Gender schema theory)

이 이론은 인식론적 발달이론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성 도식(gender schema)과 성 정체성의 개념은 매우 유사하다. 이들에 따르면 성 도식 개념은 남녀의 차이를 아이들이 인지하게 되자마자 발달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성이 남아냐는 그들에 속하는지 알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일관성을 가지고 남녀 양그룹을 구분할 줄 알게 되는데 이는 모두 2-3세경에 이미 발생한다고 한다.

(6) 심리학적 양성성 이론(Psychological Androgyny)

S. Bem은 일반적으로 그간 심리학자들의 남성성과 여성성이 한 차원(범주)의 양면이라는 주장에 반대해 분리된 2개의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양성적인 사람은 남성과 여성적 특질, 양쪽 모두를 고루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한 사람이 동정심이 많으면서도 독립적인 강한 성격과 부드럽고 유하면서도 독단적인 성격 모두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단지 어떤 특질이 우세하나 그렇지 않냐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양성적인 사람들은 성 고정화된 사람들에 비해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정된 성역할 개념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다양한 상황에서도 성 고정화된 사람보다 효과적이며 자유롭게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어떻게 이 자료를 이용할 것인가?

우선 이 자료는 성차별적 자녀양육을 지양하고자 하는 부모들을 위해 내가 소속한 어린이집에서 부모회 때 활용하려고 만들어진 자료이다.

아래의 프로그램은 이 교육자료로 어떻게 부모회를 진행시킬 것인지에 대한 사례이다. 어린이집의 교육원칙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는 또한 부모들이 집에서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우는지 알아야만 한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다양하고도 일상적인 부모와의 접촉을 통해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정기적인 부모회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부모와 교사간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이 된다. 아이들과 연관된 장기간의 부모회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주제들은 관찰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교사는 부모회 이후 끊임없이 어떻게 부모들의 행동과 사고가 바뀌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단지 일회적인 부모회로 그칠 것이 아니라 후속 부모회의 준비라든가 소식지나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프로그램 사례

- 1) 주제 : 무엇이 (反)성차별 자녀 양육인가?
- 2) 목표 : -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성역할 발달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
 - 우리 어린이집의 성차별 지양 교육의 원칙과 방식을 알려주는 것
 - 왜 성차별 지양 자녀 양육이 중요한지를 알려 주는 것
 -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부모들의 사고와 자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거리를 제시해 주는 것
- 3) 강사 : 어린이집 교사
- 4) 프로그램 : - 당일 부모회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
 - 강연 : 자료에 기초하여 간략하되, 실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을 인용.
 - 그룹 토의 : 3-4명으로 그룹을 만든다.

각 그룹마다 다른 토론 주제거리를 준다.

그룹별로 토론하게 하고 그 결과를 차트로 만들도록 한다.

- 발표와 공유 : 토론 후 다른 그룹의 내용을 들으며 종합 토론
- 마무리 : 간략히 진행된 내용을 정리한다. 다 함께 몇가지 집에서 부모들이 실행해 볼 수 있는 실천거리들을 정한다.

• 실천거리의 예 •

- 집에 있는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 책이나 놀이감을 체크해 볼 것
- 부모들이 함께 아이들과 성역할 바꾸기 놀이(cross-sex play)를 해보는 것
- TV나 비디오의 아이들 프로그램을 부모들이 함께 시청하고 이야기 나누기

• 각 그룹별 토론 주제의 예 •

- A는 7살 여아이다. A는 남자아이들과 공차기를 즐겨하고 언제나 바지만 입으려고 한다. A는 여지껏 인형놀이나 정적인 놀이에는 흥미를 보인 적이 없다. 만약 당신이 A의 부모라면 A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인가?
- B는 항상 화려한 드레스만을 고집한다. 옷가게에서도 프릴이 잔뜩 달린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사달라고 조른다. 부모가 B에게 "넌 왜 언제나 긴 드레스만 입으려고 하니? 그걸 입으면 잘 났 수도 없고 불편하잖아?"하고 물었을 때 B는 "그게 예쁘잖아요, 멋있고요."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B에게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
- 남자들은 보통 그들의 감성적인 부분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강요받곤 한다. "남자가 울어서 쓰나?" 이 말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가장 중요한 점 중의 하나는 우리 부부는 집에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함께 한다는 것이다.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차원이 아니다. 우리는 아이 돌보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누어 한다. 우리는 팀워크를 이루어 가사일을 한다. 우리는 남편일 아내일을 따로 구분짓지 않는다. 무엇이든지 필요한 일을 함께 나누어 할 뿐이다." 이것은 어느 맞벌이 부부의 인터뷰 내용이다. 당신은 이 인터뷰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차별 지양 교육을 위해 교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교사는 남녀간에 능력과 특질이 각기 다르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오직 아이들에게는 개별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아이들 각자의 특질을 최대한 격려하여 발전시킬 것인가에 있다. 사실 남녀간에는 차이보다는 인간으로서의 공통된 점이 더 많다. 교사는 성에 따른 그룹적 차이보다 개별적 차이에 더 주목해야만 한다.

(1) 놀이영역의 재구성

어린이집에서 남아들이 블럭이나 자동차나 바깥놀이를 즐겨하는 반면 여아들은 종종 소꿉놀이 영역에서 놀거나 인형놀이 등 정적인 놀이를 즐겨하는 걸 발견하게 된다. 이때

교사는 놀이영역의 재구성으로 남아 여아의 놀이가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소꿉놀이 영역이나 놀이집 안에 목공놀이 세트나 공구 세트를 비치해 놓아 집을 고치거나 집안의 물품들을 수선하는 놀이로 유도한다. 소꿉놀이 영역을 블록 영역과 가까이 배치해 놓아 상호 놀이교류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새로운 놀이에 아이들을 참여시킨다.

- 일주일에 한번쯤 여아들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자유놀이 시간에 블록 놀이를 선택하도록 "모두가 블록(다른 놀이로 대체 가능)만 가지고 노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 또 일주일에 한번 가량 "여아들만 블록 놀이를 하는 날"을 정해본다.
- 반대로 남아들이 정적인 놀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남아들만 참여하는 정적인 놀이 시간을 가져본다.

(3) 대그룹 활동에서 여아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

교사가 대그룹 활동시간에 질문을 하면 상대적으로 남아들의 반응이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남아들이 교사들로부터 여아들에 비해 칭찬이든 꾸지람이든 더 많이 받게 된다. 교사는 의도적으로 대화의 기회를 여아들에게 많이 제공하여 대그룹 활동에서 여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4) 교재, 놀이감, 책, 비디오 등 교육자료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시중에 나와 있는 교수자료집이나 교구, 동화책, 비디오 등에는 성역할 고정관념적 내용이 상당부분 들어 있다. 교육자료를 구입하거나 아이들에게 이를 제공하기 전 그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5) 교육활동 중에 남녀 그룹으로 나누어 활동을 진행하지 않는다.

종종 일과 진행을 하면서 교사는 무의식 중에 진행의 편의를 위해 아이들이 재미있어 한다는 이유로 남녀로 팀을 나누어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점심 전 손을 씻으려고 할 때 "여자 어린이들 먼저 가세요."라든지 "지금부터 xx게임을 할 건데요, 남자 어린이는 이쪽 줄에 여자 어린이는 저쪽 줄에 서보세요."라든지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것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동성의 놀이 상대를 선호하는 경향을 갖게 하거나 성차를 느끼게 해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6) 성차별 지양 교육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교사모임을 만든다.

일과 중에 일어난 일이나 교재·교구에서 발견되는 성차별적 문제점, 부모의 양육태도 등에 대해 연구하고 토의하여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교사 모임을 만든다. 혹은 교사 회의에서 정기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7) 부모교육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의 성역할 발달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는 부모회와 같은 정기적 모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부모와 접촉하여 성차별 지양 교육에 대해 알려주고 가정에서의 협조를 구한다.

4. 결론

그간 많은 심리학자들은 각기 다른 관점과 접근 방식으로 아이들의 성역할 발달에 대해 논쟁해 왔다. 그러나 거기에는 약간의 공통점 또한 존재한다.

첫째로 어떻게 어린 아이들이 그들의 성 정체성과 성역할 고정관념과 그에 따른 행동을 획득하게 되는지이다.

둘째로 아이들의 성역할 발달에 얼마만큼 부모들의 영향력이 큰 요소인가 하는 점이다. 나는 최근의 S.Bem에 의한 '심리학적 양성성' 개념의 도입이 매우 시사적이라 생각한다. S.Bem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성적 성향을 지닌 아이들은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지거나, 친구를 사귄다든 혹은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때 남녀 성에 연관된 고정관념이 거의 없이 그러한 일들을 수행한다고 한다. 선택의 폭이나 내용이 그만큼 넓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들은 성의 구속에서 자유롭고 또한 상대적으로 정형화된 성유형의 아이들보다 친구들과 사이에서 인기도 높고 환경의 다양성이 요구하는 바를 훨씬 폭넓게 수용한다. 내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양성성 이론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이론이 어떠한 사람이 이상적인가를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그들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시켜 최선을 다해 키울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여러가지 제한점과 압박을 느끼게 하는 고정적 성역할에 아이들이 길들지 않고 그들의 삶을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아이들에게 줄 의무가 있다. 사회가 가지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성차에 따른 고정관념에 얽매어 장차 자신들의 삶의 폭이 반으로 줄어들게 하지 않을 권리가 아이들에게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시, 왜 우리는 성차별 지양 교육을 해야 하는가?

의외로 대답은 간단할지도 모른다.

"아이들에게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절반의 세계를 빼앗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당신과 내가 자유롭게 되기 위하여..."

2 부(부모 교육용 자료)

- 차례 -

1. 왜 우리는 성차별 지양 자녀교육을 얘기해야 하는가?
2. 어떻게 아이들은 성과 그에 따른 implication을 획득하게 되는가?
 - (1) 성개념의 발달
 - (2) 성역할 고정화
 - (3) 성 유형적 행동
 - (4) 이론적 배경
3. 무엇이 아이들의 성역할 고정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4. 우리 아이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을까?
5. 우리는 성차별 지양 자녀교육을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1. 왜 우리는 성차별 지양 자녀교육을 얘기해야만 하는가? 무엇이 성차별 지양 자녀교육인가?

J.Statham은 성차별 지양이란 남성적 특질이나 여성적 특질 양쪽 모두가 장려되어 양성이 똑같아지거나 혹은 두가지 성이 가지는 특질의 새로운 결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MacCoby와 Jaclin은 그간 발표된 남녀 성차에 의한 논문 1,600여개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아와 여아의 차이가 사실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어느 논문들에서도 명확하게 남아와 여아의 특질은 이리이러한 것이라든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논문 검토결과 밝힌 내용은 남아가 여아에 비해 약간 수학능력과 공간감각이 발달하였고 공격적이며 여아는 남아에 비해 언어능력이 약간 높다는 정도였다. 어디에서도 양성간의 능력과 성격의 차이라고 보편적으로 알려진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한 증명은 찾지 못했던 것이다. "여아가 남아보다 훨씬 사교적이다."라든지 "여아는 남아에 비해 자아 존중감이 낮다."라거나 "여아가 성취도에 남아보다 동기 부여도가 훨씬 약하다" 등등의.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곳곳에 너무 많이 성역할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있다. 사실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들의 성에 따라 다른 대접을

받는다. 여아는 분홍담요에 싸이고 어른들로부터 "귀엽기도 하지, 예쁘구나, ..." 등등의 인사를 받는다. 반면 남아들은 "잘 생겼네, 씩씩하게 생겼군, 장군감이다, ..." 등등의 인사를 받게 된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단지 인간으로서 어떤 성이나에 연관되지 않은 그들만의 잠재적 능력과 개별차를 지니고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아이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장애가 된다. 꽃을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있다면 그는 최대한 그의 감수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꽃을 좋아하는 남아는 정형화된 성역할 고정관념적 양육방식에 의해 감수성은 줄어들고 전형적인 남아의 특질만이 두드러지게 커나가기 쉽다.

어떤 유형의 아이가 바람직할까?

어떤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들의 아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야망이 있으며 지적이고 자기의지가 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란다고 한 반면, 딸에게는 친절하고 이타적이며 사랑스럽고 예절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러한 특질들은 전형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표현들이다. 그러나 그 특질들이 남아에만, 여아에만 고정되지 않고 한 사람에게 골고루 들어 있다면 어떨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매우 이상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

많은 연구 조사들은 생물학적 성차는 양성간의 성격이나 능력과 남녀의 사회문화적 지위의 차이를 낳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S.Bern은 성역할에 관한 연구 목표를 제한된 성역할 고정성으로부터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성격을 지닐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문화적으로 부과된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정의로부터 사람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모와 모든 어른들은 아이들을 자유롭게,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양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어떤 방식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모든 고정관념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롭도록 만드는 최선의 길이 될 것인가?

2. 어떻게 아이들은 성 정체성과 그에 따른 implication을 획득하는가?

(1) 성 개념의 발달

3 단계가 있다. 첫 단계는 성 정체성을 갖게 되는 단계로, 성 정체성이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신의 성에 대한 자각을 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2살 무렵 아이들은 사진을 통해서 본 다른 사람의 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종종 그 무렵의 아이들은 자신의 성 정체감에 있어서는 불명확하게 보이기도 한다.

2년 6개월에서 3세 사이의 아이들 대부분은 타인의 성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 또한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두번째 단계는 성 안정성(gender stability)이다. 4세경이면 아이들은 자신의 성이 일생을 통해 한가지로 지속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는 성 항구성(gender constancy)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아이들은 설혹 여성이 남성의 옷을 입거나 남성이 머리를 기르는 등 사람의 외양은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생물학적 성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2) 성역할 정형화(sex-role stereo types)

성인들은 남성은 공격적이고 활동적이며 독립적, 경쟁적이고 여성은 다정하고 소극적이며 부드럽고 남을 잘 돌봐주는 특성이 있다는 등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비교적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 여러가지의 아동 연구조사에 따르면 성역할 고정관념은 매우 일찍 아이들에게서 발견된다. 2세 경에 아이들은 이미 음식 만들기과 청소는 여자의 일로, 자동차와 공구세트는 남자의 일로 연관지을 줄 알게 된다. 3-4세경에 아이들은 사람들의 직업이나 놀잇감, 놀이 등을 성고정적으로 분별한다. 5세경이면 아이들은 추상적인 성격이나 사람의 특질을 남자나 여자나에 따라 연관지을 줄 알게 된다.

(3) 성 유형적 행동(sex-typed behaviour)

R.Shaffer에 의하면 아이들 행동의 '성 적합성(sex-appropriateness)'을 측정하는 가장 보편적 방법은 아이들이 누구와 무엇을 하며 놀고자 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라고 한다. 놀잇감 선호에 있어 나타나는 성차와 동성 또래끼리 노는 것을 더 선호하는 아이들의 성향은 매우 어렸을 때부터 나타난다. 14개월에서 22개월 사이의 아이에게서 이미 남아는 타고 노는 놀잇감을 좋아한다거나 여아는 인형놀이를 더 선호하는 것과 같은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2-3세경의 아이들은 이미 동성 또래와 어울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이 관찰된다.

(4) 이론적 배경

생물학적 접근방식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미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발생된 생물학적 차이가 남아 성차를 만든다고 한다.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하는 이론가들은 성 유형화는 아이들이 동성부모에 대한 자기 동일시를 하며 성 정체성을 획득해나가는 과정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주장한다.

사회학습이론은 아이들이 자신의 성에 맞는 행동을 했을 때 받는 칭찬과 격려, 그렇지 않을 때 어른들로부터 받는 나무람과 비난으로부터 형성되는 '강화 작용'과 아이들 스스로 어른들의 성 유형적 행동을 보고 모방하는 모델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아이들이 주위의 동성모델을 통해 자신들의 성 유형적 행동을 체득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본다.

성 도식이론(Gender Schema theory)은 아이들 스스로가 남녀간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자마자 남자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여자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틀을 획득하게 된다고 한다.

인지론적 발달이론에서는 아이들의 성역할 발달과정은 아이들의 인지발달과정과 같다고 이야기 한다.

최근의 연구에서 보여지는 새로운 경향으로 심리적 양성성 이론이 있다. 양성적 개인은 남성성과 여성성 양쪽 모두를 골고루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최대한 어느 한쪽만이 고정관념에 의해 발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3. 무엇이 아이들의 성역할 정형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1) 부모의 행동

6개월 된 아이를 남아인지 여아인지 구별이 가능한 옷과 이름을 주고 어른들에게 보였을 경우(남아가 여아 옷을 입고 여아 이름으로 불리우게 해놓거나 그 반대 경우도 가능) 그 아이의 본래의 성과는 무관하게 어른들은 자신들의 고정관념으로 아이에게 반응함이 실험조사로 밝혀진 바 있다. 남아에게 여아 옷을 입히고 여아 이름으로 부를 경우 그 아기가 큰 몸짓을 하면 그를 지켜보는 어른들은 아기가 놀고 싶어하는 행동으로 해석하고 그에 따라 함께 몸을 움직여 놀아주는 반응을 하고 그 반대의 경우, 즉 여아에게 남아 옷을 입히고 남아의 이름을 주었을 경우 본래의 성과는 무관하게 어른들은 아기의 같은 몸짓을 보고 아기가 놀라서 공포를 느끼는 행동으로 해석하여 아기를 안아 다독여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많은 조사 결과들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을 다루는 것을 밝혀 냈다. 부모들은 딸이라면 전통적인 여성적 행동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아들에게는 남성적 특질(독립적, 적극적, 공격적, 경쟁적, 성취적 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기른다. 아이들의 성역할 고정화는 부모들의 칭찬과 격려, 비난과 꾸지람에 의해 강화된다. 특히 남아가 여성적 행동을 했을 경우가 여아가 남성적 행동을 했을 경우보다 더 심하게 비난을 받는 경향이 있다. 이는 남아의 경우 양육과정에서 여아보다 더 심하게 성역할 고정화가 진행됨을 보여 준다.

(2) 교사와 교육시설의 영향

"선생님이 바닥에 하얀 줄을 긋고 여아는 한쪽에 남아는 반대쪽 줄 위에 세워 놓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유치원에 딸을 보내는 엄마의 경험담)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빠처럼 넥타이 매고 있을까, 엄마처럼 행주치마 입고 있을까, 다 같이 흉내내 보자. 나는 엄마, 나는 아빠..."(유아교육시설에

서 분리워지는 노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생일 잔치를 하는데 남자아이들은 종이 왕관을 쓰고, 꽃목걸이를 한 여자아이들의 볼에 뽀뽀를 해주고 있었다.”(유치원에 딸을 보내는 엄마의 경험담)

아이들의 교육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2-3세경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학원 등 어떠한 형태이든지 교육기관에 보내진다. 교사는 아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람 중의 하나이다. 만약 교사가 성역할 고정적 사고와 행동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그것을 모방하고 또한 그 교사로부터 여러가지 유형의 강화작용을 받게 된다. 교육기관에는 분명 “숨겨진 커리큘럼”이 있다. 거기에는 편견과 쓸모없는 고정관념적 내용을 담고 있는 교재, 교구, 또한 남아나 여아나에 따라 아이들의 행동에 다른 기대치를 부여하는 교사의 태도 등이 포함된다.

(3) 매스 미디어

“아이들 TV 프로그램에서 눈에 보이는 주인공의 70-85%가 남자이다.”

“미국의 어린이 교육용 TV 프로그램에서 주인공은 100%가 남자로 구성되어 있다.”

많은 TV 프로그램들은 아직도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등장 횟수가 훨씬 적다. 여자가 소극적이고 감정적 성격으로 대부분 묘사되는 반면 남자는 보통 주요역할을 수행하고 그 반대 성격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미디어의 모델들이 아이들의 성역할 발달에 영향을 미침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Freuh와 McGhee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5-11세 아이들의 경우 TV 시청을 많이 하는 아이들일수록 놀이감 선택이나 놀이 유형에 있어 성고정화된 관점을 많이 보여준다고 한다.

(4) 책과 놀이감

“산타 할아버지가 남자 아이들에게는 모두 권총을, 여자 아이들에게는 소꿉놀이 세트를 선물로 주었다.”(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엄마의 경험담)

미국에서 발행되는 아동도서와 관련한 연구에 따르면 그림에서 보여지는 남녀의 출현빈도수는 11:1, 제목에서 나타나는 남녀의 비율이 8:3, 동물 캐릭터의 경우 남녀의 비율이 95:1이라고 한다.

아이들은 책, 놀이감, 이야기와 노래 등을 통해 성역할을 배우고 모방하며 상상력을 발전시킨다.

TV와 마찬가지로 책 또한 성역할 고정관념적 내용이 많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여자 캐릭터의 출현 빈도수가 절대적으로 적다. 작하고 아름다운 주인공이거나 마귀할멈과 같은 극단적 성격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매체의 영향은 아이들로 하여금 이

런 시기부터 여아는 인형이나 소꿉놀이를 좋아하게 된다거나 남아들은 목공놀이나 블럭쌓기, 자동차 놀이를 선호하게 만든다. 이 영향은 아이들이 커서 남녀의 성에 따라 특정 기술과 관심 분야가 달라지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4. 우리 아이들, 어떤 유형의 사람으로 자라게 할 것인가?

“남자 아이는 울면 못써.” “여자애는 나무에 올라가 노는 거 아니야.”

왜 안되는가? 누구나 자기가 원하면 남자건 여자건 울 수 있고 나무에 올라 갈 수 있다. 남자가 울면 안된다거나 여자가 나무 타는 놀이를 하면 안된다는 데에는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없다.

모든 아이들은 그들 자신만의 독특하고 개별적인 성격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어떤 아이들은 좀더 여성적 특질을 많이 갖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남성적 특질이 더 많이 발견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그 아이들이 남아건 여아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개별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켜주느냐에 있다. 우리는 쉽게 남성성과 여성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의로 목록을 만들 수 있다. 남자에게는 ‘독립적, 공격적, 객관적, 활동적, 경쟁적, 모험적, 자신감 등등’, 여자의 경우 ‘압전하며 정적이며, 부드럽고 타인의 감정을 잘 배려할 줄 알며 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등등’

우리 아이가 위에 열거한 사항 중 어느 한쪽의 성향만을 그들의 성에 의해 갖게 되는 것과 양쪽 모두의 특질을 균형잡히게 갖게 되는 것 중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5. 성차별 지양 자녀교육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1) 부모 자신이 성차별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 (2) 오직 아이들의 개별적 성격과 능력만을 고려한다.
- (3) 남아건 여아건 아이가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생각한다.
- (4) 성역할 바꾸기 놀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
- (5) 반성차별적 TV 프로그램, 비디오, 책, 놀이감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
- (6) 자녀가 다니는 교육시설에서 성차별적 혹은 성역할 고정적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새날을 여는 사람들

엄마와 아이가 함께 사는 공간

김미영 / '엄마사랑유치원' 산내들엄마

엄마사랑유치원의 김미영선생님과 인터뷰를 할 예정이었는데 선생님과 편집부 시간이 맞지 않아 인터뷰가 성사되지 못한 관계로 『대안학교의 모델과 실천』이라는 책에 실린 선생님의 글내용과 우리가 알고자 했던 부분이 일치하여 원문 그대로 실습니다.

계명의 그늘

내가 찾는 아인
흔히 볼 수 있지
넓은 세상 볼 줄 알고
작은 풀잎 사랑하는
위위 흔히 있지
예예 볼 수 있지

피꼬리 엄마와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흔히 볼 수 없는 그 아이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지리하게 계속되던 장마비가 그치고 모처럼 맑은 하늘이 눈부시게 느껴지는 오늘, 주교사 피꼬리엄마와 보조교사 산내들엄마를 남겨 놓고 나머지 엄마들은 텃밭으로 향했다. 장마 때문에 힘들게 가꾸고 있는 텃밭을 지난 한 주 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텃밭에 가면 할 일이 많을 것 같아 오늘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 텃밭 가꾸기는 요

즘같이 먹을 것이 풍부한 시대에 음식물이 얼마나 힘들게 생산되는지를 아이들로 하여금 직접 체험하게 하여 음식 귀한 줄을 알게 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다. 아울러 노동의 즐거움과 수확의 기쁨을 느끼게 하고, 생명이 자라는 것을 봄으로써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자는 의도도 함께 자라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목표는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엄마들에게 더 잘 달성된 듯하다. 내리퍼는 햇빛 아래에서 땅을 파고 풀을 뽑고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돼지똥 거름을 퍼 나르면서, 돈만 내면 시장에서 쉽사리 구할 수 있었던 각종 먹거리들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가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체험'이란 참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애초에 공동육아를 생각하게 된 것도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삶에 유용한 지식들을 온 몸으로 체험하여 얻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가장 좋은 교사는 엄마

'가장 좋은 교사는 엄마'라는 신념, 그러나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미심쩍기만 했던 그 신념 하나만을 가지고 교사로서 엄마의 자리를 찾기 위해 공동육아라는 배를 출범시킨 지도 어언 6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초록엄마와 동일이, 달님엄마와 효연이, 꽃구름엄마와 다희·인희, 피꼬리엄마와 제정·종근이, 햇님엄마와 소영·소현이, 등근엄마와 근하·예림이, 산내들엄마와 제영·재권이, 우리들은 한 유치원에서 만났다. 등하원길에서 자연스럽게 얼굴을 익힌 우리는 서로 마실도 다니고 음식도 나누면서 점차 가깝게 되어 마침내는 친목계를 하나 만들었다. 한 달에 한 번 집집마다 음식을 장만해서 집 근처에 있는 서오농으로 나들이를 가는 것이다.

저렴한 경비로 신나게 먹고, 놀고 나면 그동안 살림하느라, 아이들 기르느라 예쁜 노고가 다 잊혀지는 것 같았다. 아이들도 서로 어울리는 것을 무척 좋아해서 우리는 아이들이 모일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하였다. 아동극 구경을 가기도 하고 마을 뒷산에 오르기도 하며, 때로는 큰 맘먹고 하루나 이틀 정도 잠을 자고 오는 여행을 가기도 하였다. 엄마 혼자서는 어려웠던 일들이 여럿이 모이니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 나이 또래의 주부들이 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도 가족들의 건강 문제와 자녀 교육 문제였다. 서로가 가진 정보들을 교환하고 새로운 정보를 알고자 노력하던 중 '땅을 지키는 모임'이라는 생활 협동조합에 가입하게 되었다. 공기, 땅, 물 할 것 없이 극도로 오염된 세상이지만, 그리고 생태계 파괴라는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도 소중한 어린 새싹들의 엄마들이기 때문이다. 다소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무릅쓰고 생협공동체 활동을 열심히 하였다.

무농약 유아교육

그러던 중 우리는 무농약 먹거리 뿐만 아니라 무농약 유아교육(?)에 까지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처음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때만 해도 우리 엄마들은 학부형이 되었다는 기쁨과,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있는 동안에 생기는 여유 시간으로 인해 자못 설렘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유치원 교육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심각한 고민 없이 무조건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 3층짜리 건물에 입구가 단 하나밖에 없는데도 평소에 재난 대비 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 비싼 교육비를 내는데도 연극 구경 한 번 가지 않는 것, 선생님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것, 단지 학부모에게 보여주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종종 눈에 띈다는 것 등등이 엄마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불만거리였다.

이런 문제점들은 비단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어서 유치원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할 일은 아니었다. 게다가 우리들 마음 속에는 기존의 유치원에서는 하기 힘든 새로운 희망사항들도 새록새록 피어나고 있었다. 우리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심성을 키워가며, 자연과 자주 접하여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고정관념을 깨면 세상이 즐겁다'는 광고문구가 우리 엄마들에게도 위력을 발휘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공동육아를 실천에 옮길 직접적인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하루 스물네 시간을 엄마의 시야 속에서 살던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 놓고 엄마들은 자신들이 직접 볼 수 없는 그 서너 시간 동안의 아이들의 모습을 무척 궁금해 한다. 아이들의 유치원 생활을 돌아보아야 하는 선생님의 눈에 우리 아이의 일거수 일투족이 얼마나 제대로 포착되었을까 하는 점도 늘 의문이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엄마들 셋이 돌아가면서 자기들의 아이 셋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가르치면서 보니 집에 혼자 있을 때의 아이의 행동과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있을 때의 아이의 행동이 사뭇 달랐다. 유치원 선생님한테서도 듣지 못했던 일이라 적잖이 놀랐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유치원만 믿고 있어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다. 마음 속에만 간직하고 있었던 공동육아의 꿈을 현실로 옮겨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우선 세 명의 엄마들이 마음을 모았고, 같이 어울리던 나머지 엄마들한테도 동참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그들의 결심을 얻기란 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시도한다는 데에 대한 두려움, 과연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고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그리고 귀찮고 힘들다는 등등의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동생들 문제, 장소 문제와 같은 어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 모임을 성사시켜야 할 운명적인(?)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앞서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를 유치원에만 맡겨 놓고 안심할 수는 없다는 점, 둘째는 우리가 원하는, 그러나 유치원에서는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교육 프로그램을 꼭 해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 셋째는 오늘과 같은 핵가족 시대에 우리의 아이들에게 성장한 이후에도 서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 주자는 배려, 넷째는 이번 기회에 우리 엄마들도 공부하고 연구하는 멋진 엄마로 변신해 보자는 결심, 마지막으로 남편들의 적극적인 협조, 이런 것들이 우리 모임을 있게 했고, 지금까지 지탱할 수 있게 도와준 원동력이다.

엄마가 직접 만드는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

우리 모임은 건강한 어린이, 예의바른 어린이, 남과 더불어 사는 어린이, 우리 것을 사랑하는 어린이,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 혼자 서는 어린이 등의 교육목표를 세워, 이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책에서 구하기도 하고, 엄마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여 직접 만들어 내기도 한다.

대표적인 학습 내용으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비롯한 친척들에게 편지쓰기, 갖가지 민속놀이 하기, 등산, 현장학습, 요리실습, 텃밭 가꾸기 등이 있다. 등산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산을 오르내리면서 풀과 나무, 갖가지 벌레들의 이름을 배우고, 잘 모르는 것들은 유치원에 와서 책을 찾아서 배운다. 이렇게 해서 익힌 것들은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그야말로 산 지식인 되는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가깝게 지내야 할 친척들과 자주 교류할 수 없는 핵가족 문화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실시한 편지쓰기 프로그램은 아이들과 아이들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계속되고 있다. 요리 실습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이제까지 아이들이 해 본 음식은 김치, 전달래전, 콩국수, 경단, 인절미, 현미떡 케익 등이고, 이 역시 아이들이 가장 좋아 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아이들 숫자가 적고(동생들까지 12명), 모든 계획을 그야말로 엄마들 마음대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학습은 기동력 있게 진행된다. 한달 계획을 미리 짜긴 하지만 특별한 전시회나 행사가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언제라도 달려간다. '기동력과 융통성'은 우리 유치원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인 것이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우리가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은 점심이다. 무농약 현미잡곡밥에 갖은 야채와 영양이 풍부한 두부, 콩나물, 된장국, 김치 등의 식단이 매일매일의 식사 시간을 즐겁게 한다. 다른 교육내용은 다 그만두고라도 이 식사 하나만으로도 엄마사랑유치원의 존재 이유는 확실하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을 정도이다.

우리 모임의 운영 방식은, 엄마들 여섯 명 중 다섯 명이 한 명씩 돌아가며 주교사를 한다(달님엄마는 전업주부가 아니어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아이들과 같이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는 것이다. 유치원 교육 시간이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니까 하루

세 시간 동안의 프로그램을 혼자 꾸려 나가야 한다. 세 시간이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결코 만만치가 않은 시간이다. 준비를 어설프게 했다가는 당황하기 쉽다.

주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한 명은 일주일 식사당번과 어린 동생들을 돌보아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일주일에 하루 주교사를 하게 되고, 6주 만에 한 번씩, 일주일(정확하게 말하면 닷새) 동안 식사당번(우리는 '밥엄마'라고 부른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주교사는 그날그날의 교육내용을 일지에 기록하는데, 이는 교육의 연속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엄마들은 일지를 통해 어떤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된다. 물론 중요한 사항은 직접 만나 이야기하기도 한다. 교육계획은 한 달에 한번 대충의 흐름을 잡고, 이주일에 한 번 금요일에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한다.

호칭은 앞에다 별칭을 붙이고 뒤에 '엄마'를 붙여 쓴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너무 딱딱하고, 아줌마 혹은 누구 엄마라고 부르면 또 너무 격이 없을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어떤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사용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어색할 하더니 지금은 아주 자연스러워져서 마치 진짜 이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장소 문제는 운 좋게도 한 회원의 지하실 방이 비어 그곳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주방이 딸린 조그마한 방 하나와 꽤 넓은 방이 하나 있어서 실내 수업을 하는데 그리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유치원을 꾸미는데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다. 요즘 세상은 너무 벽을 장식하는데만 치중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인위적인 것으로 눈을 즐겁게 하기 보다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서 구태여 아름답게 꾸미려 하지 않는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자연만큼 맛있고 아름다운 예술품이 어디 있겠는가? 자연을 많이 접하게 해준다면 아이들의 예술 감각도 저절로 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경제력과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따진다면 굳이 할 말은 없다).

교육비는 6~7세 아이는 한달에 3만원, 4~5세 아이는 2만원을 받고 있다. 가정 사정으로 엄마가 참여하지 못하고 아이만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는 4만원이다. 장소를 무료로 얻었고, 엄마들이 노력 봉사를 하기 때문에, 즉 인건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자녀 교육에 다시 돌아볼 필요

우리 모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이 기존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을까, 나중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잘 적응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하지 않느냐고 한결같이 물어본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이나 위치에 처하든지간에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적응력의 문제를 이

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유치원의 아이들은 어떤 다른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보다도 모든 상황에 잘 적응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모인 곳에 문제가 없을 수 없어서, 우리 모임 역시 항상 순항만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론 힘들고 지쳐서 회의가 오기도 하고, 과연 처음에 마음먹은 대로 잘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하다. 그러나 남의 아이, 내 아이 할 것 없이 사랑스럽게 생각되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고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게 된다.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혹은 유치원에 보낼 아이를 가진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남들이 하니까 따라한다는 식으로 유치원에 보내지 말고, 먼저 자식에게 어떤 것을 가장 해주고 싶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것이 가장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다. 그것을 기존의 유치원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미련 없이 유치원을 보내시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용기있게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기 바란다.

처음에는 손도 잘 잡아주지 않던 아이가 이젠 마치 친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품 속으로 파고들 때 느끼는 행복감, 친형제처럼 어울려 지내는 아이들을 볼 때 느끼는 호뭇함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공동육아에 대한 꿈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 요즘같은 경쟁 시대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다는 사실이 정말 아무런 시기심이나 질투심 없이 고맙게 느껴지는 소중한 경험까지 하게 될 것이다(내게 없어 아이에게 해 주지 못하는 것을 다른 엄마들이 배풀어 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새 책 소개

놀이방 아이들의 세상만들기

-E.Q를 높여주는 육아제안 20-

오숙희 추천·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지음
육아·여성 실용 / 국판 / 200면 / 값 5,500원

'우리 아이는 놀이방에 있는 동안 무얼 하며 지냈을까?'

지탁연에서는 놀이방, 어린이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드러나는 아이들의 독특한 세계를 에피소드 형식으로 담아 책으로 출판하였습니다.

모두 여섯마당으로 구성된 이 책은 아이들 세계에 대한 다양한 해설과 아이를 향한 애정어린 시선을 통해 부모와 교사가 아이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만3-6세 아이들의 E.Q(감성지수)를 높여줄 수 있도록 아이들의 독특한 세계를 드러내보여, 전에는 그냥 '아이니까'하고 스쳐 지나갔던 많은 아이들의 말과 몸짓의 의미를 깊이 느끼게 하고 그 깊이만큼 성숙한 사랑을 주고 받으며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거나 보내려는 부모들과 현재 보육교사로 활동하거나 보육교사를 희망하는 분, 혹은 어린이집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하는 것도 괜찮겠지요?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교육

기쁨과 희망을 주는 그림책

오윤정 / 본회 교육연구부원

「그림책을 좋아하는 교사모임」 회원

이 글은 오윤정님이 지난 9월 11일 있었던 어깨동무어린이집 부모교육시간에 그림책에 관해 강의한 내용입니다.

어깨동무어린이집에서 다른 시설에서도 부모교육용 자료로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고 편집부로 보내주셨기에 소개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릴 때 본 그림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골라줄 때 어떤 기준으로 골라주어야 하는지 막막하기 일쑤입니다. 이 자리는 그림책에 대해 아이의 눈으로 보고 느끼고 즐거움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좋은 그림책을 고를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1. 유아와 그림책

책을 읽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아마 우리가 의학책을 대하면 글자는 읽겠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책을 읽는다는 것은 글자를 읽는다는 것과 다릅니다.

그림책을 읽어주는 동안 아이들의 행동은 여러가지입니다.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비트는 아이, 옆 친구 건드리는 아이, 그림책이 떨어지려 쳐다보는 아이... 이야기에 빨려 들어간 아이의 눈은 그림책에, 선생님의 눈에 가 있지만, 실은 머릿속에 그려진 이야기의 세계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책을 읽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음속으로 보이게 하는 힘을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상력으로 책을 보는 것이며, 또한 책을 통해 이러한 상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력의 발달은 바로 독서할 수 있는 능력의 바탕이

되며, 꿈을 꿀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상상력과 관련되어 있는데, 유아는 상상력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때 상상하는 힘에 도움을 주는 것이 그림입니다. 유아는 그림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영상을 얻음으로써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길을 찾을 때 약도가 있으면 더 쉽게 알 수 있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아에게는 그림책이 필요합니다. 글을 읽지 못하니, 설령 글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이야기를 이해하는 힘이 적으니, 그림을 통해 이야기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2. 좋은 그림책이란?

그림책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개구쟁이 해리 <G.자이언 지음, M. 그레엄 그림 / 김중철 옮김 / 다산기획>

어느 날, 목욕을 싫어하는 해리는 물레 집 바깥으로 놀러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실컷 논 해리는 이제 온몸이 새까맣게 되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지친 해리는 집에 돌아오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상심한 해리는 집밖으로 나가려다, 아까 숨겨놓았던 목욕 솥을 찾아 집안사람들에게 목욕을 해 달라고 합니다. 더러움이 씻겨나가 집안사람들은 해리를 알아보게 되고, 목욕을 끝낸 해리는 목욕 솥을 베개 밑에 숨기고 잠이 듭니다.

1) 그림만 봐도 이야기가 전달됩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장에 그려진 그림이 그 장에 쓰여있는 글을 충분히 담고 있기에 글을 읽지 않아도 대강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장을 보면 다음 장이 궁금해집니다. 바로 그림 한 장 한 장이 이어져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그림책은 그림으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은 어른과 달리 그림책을 글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통해 보기 때문입니다. 처음 그림책을 손에 쥐고 넘기면 어른은 글부터 먼저 읽게 되는데 아이들은 그림부터 봅니다. 또 한쪽에 쓰여진 글을 다 읽기도 전에 페이지를 넘기려 합니다. 아이들은 그림으로 이야기를 읽고 있기 때문에 막 넘기려 하는 것입니다.

2) 화려한 색상의 그림이 아니지만 이야기가 주는 매력이 담겨 있고, 글은 잘 다듬어져 아이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좋은 글은 간단하고 알기 쉬어야 합니다. 「해리」의 글은 꼭 필요한 글만으로 멋진 글

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런 글의 경험은 아이들에게는 문학적 경험이 됩니다. 문학에서 쓰이는 언어는 언어의 연결이나 짜임새가 제삼자가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언어의 경험은 아이들에게 보다 깊은 언어 체험을 줄 것입니다. 어른들 역시 같은 내용의 이야기라도 하는 사람에 따라 그 맛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한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말로 표현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 말을 자신의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림책은 언어가 주는 재미와 문학적 체험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글자를 꼭꼭 집어가면서 학습지 하듯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추상적이고 어려운 글이 있는 그림책은 피하고, 글이 많은 것이 좋은 그림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글이 문학적 경험이라 한다면 그림은 예술적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리」 그림을 보면 해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리가 놀고 있는 곳의 사람들도 모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예술 감각을 좀 먹는 그림책은 대충 그런 그림책입니다. 나쁜 그림책을 보면 나오는 아이들이 특징이 없이 이 아이가 이 아이 같고 저 아이가 이 아이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볼 것이 없습니다. 풀 한 포기라도 특징을 살려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이어야 합니다. 어른이 글을 읽어주는 동안 볼 것이 풍성한 그림책이 좋은 그림책입니다.

3) 아이의 기분을 잘 반영한 그림책입니다. 또 아이의 입장에서 그린 그림책입니다.

해리는 아이들에게 있어 '나'입니다. 내가 목욕하기 싫어 몰래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밖은 무섭기는 하지만 그래서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나는 밖으로 나와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실컷 놀니다. 그리고 친구도 있습니다. 이제 놀았으니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몰래 나왔으니 뒷문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는데 글썽 집안식구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 엄마들이 화가 나서 "넌 우리 애 아니야."하는 것과 같습니다. 알아달라고 온갖 재주를 부리지만 집안식구들은 외면합니다. 실망한 나는 집밖으로 나오려 하는데 아, 숨겨놓은 목욕 솥! 신나게 목욕탕으로 뛰어갑니다. 목욕을 끝낸 나는 다시 가족 품으로 돌아오고, 저녁까지 먹고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몸을 더럽힌 채 노는 꿈을 꾸면서...

아이들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이 모두 이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보다 넓은 세계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를 밖으로, 그것도 해리 혼자서 나가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럽혀질 걱정 없이 실컷 놀고 싶은 욕구, 이제 놀았으니 다시 안정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까지 이 그림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험상궂은 엄마가 맞이하듯 해리도 집안 식구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느꼈을 슬픔과 좌절을 해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아이들은 그림책을 보면서 상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어 결국 집으로 들어온 해리, 맛있는 밥을 먹고 잠이 듭니다. 그리고 또

꾸는 꿈은 밖에 나가 노는 꿈. 해리처럼 항상 모험하려는 마음이 있는 아이가 하루하루를 의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아이입니다.

어머니들은 이 그림책을 보면서 "봐라! 목욕하기 싫어 도망가더니 혼났지? 너도 목욕 싫어하면 어떻게 되겠어?"하고 아이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해리」 그림책을 보며 어른이 느낀 것과 아이가 느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 엄마가 또 한번 목욕하는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쓸데없는 말이 되겠지요. 어른은 이렇게 교훈적인 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그림책은 어린이가 경험하는 세계를 어린이의 발상과 기분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 해리라는 개가 사람과 같다는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책에서는 동물도 말하고, 도깨비, 산신령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어른이 잃어버린 공상의 세계가 아이들에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야기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것을 현실에 비추어 없다고 이야기하는 부모는 어린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입니다.

4) 우리 문화와 정서가 배인 그림책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그림책 상황이, 값싼 수·문자그림책이나 교재가 주로 출판되고 예술성 있고 상상력을 키우는 그림책은 주로 수입되기에 우리 정서가 담긴 그림책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 그림책은 분명 그 나라 아이들이 사는 정서를 배경으로 하기에 아이들이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정서와 문화가 배인 그림책을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해님달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우리 문화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외국 좋은 그림책이 번역되어 나오는 형편에 우리 그림책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우리 그림책을 부모들이 많이 사 주고, 비평과 의견을 출판사 혹은 작가들에게 보냄으로 우리 그림책 시장을 넓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좋은 그림책 외에도 우리 나라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서가 고스란히 배인 옛이야기에는 아이들도 좋아하며 조상의 슬기와 지혜가 배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3. 부모가 그림책을 골라줄 때

- * 어른들은 그림책을 대하면 먼저 글을 읽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림부터 보게 됩니다. 그림책을 고를 때는 우선 그림을 꼭 넘겨 무슨 이야기의 그림책인지 보십시오. 그래야 아이의 눈으로 좋은 그림책을 고를 수 있습니다.
- * 그림을 꼭 넘겨본 이후 글을 찬찬히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읽는데 매끄럽고, 추상적이거나 어려운 문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 그림책을 보고 부모가 '아, 재미있다' '감동적이다' 라고 느끼는 그림책을 구입하세요.

- * 서점에 자주 가는 것이 좋습니다. 날권 판매되는 그림책을 여러 권 건주어 봐서 좋은 그림책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전집류는 좋지 않은 그림책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때 그때 아이가 흥미있어 하는 것을 소재로 한 그림책을 사기 위해서는 날권으로 살 수 있는 그림책이 좋습니다.
- * 교훈에 치우치거나, 유아적인 그림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 * 글이 반복적인 그림책은 구성 또한 반복적입니다. 아이들이 알아듣기 쉬운 반복적인 말이 있는 그림책은 구성 또한 반복적입니다. 이러한 형식은 아이들의 성장발달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조롭게 이야기를 끌어가는 그림책보다는 아이들이 알아듣기 쉬운 반복적인 구성의 그림책이 좋습니다.
- * 아이들과 그림책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또 엄마가 만들어 주어도 좋습니다.

4. 그림책을 읽어주는 부모

그림책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통해 이야기를 듣는 아이는 행복하겠지요. 또한 그 그림책에서 얻은 느낌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유하는 것 만큼 아이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 * 그림책을 사면 아이가 충분히 그 그림책을 탐색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그림을 충분히 볼 수 있게 시간을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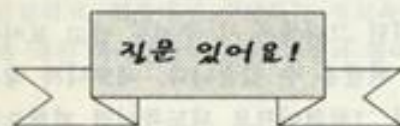
- * 읽어주는 부모는 미리 그림책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읽어줄 때는 술술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하듯 읽어주어야 합니다.
- * 아이가 막 그림을 넘길 때는 그냥 넘기도록 하십시오. 왜냐면 아이는 그 장면을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마구 넘기지만 차츰 엄마가 읽어주는 대목이 있어야 다음 장면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 * 읽어주고 난 이후 시시콜콜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후 그림책을 읽으면 숙제처럼 엄마에게 대답을 해야 한다면 그림책의 감동이 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 * 읽어주고 난 이후 그냥 '재미있었어? 어디가 제일 재미있었어?' 정도로 묻고 아이가 느낀 것을 그림으로 그리게 한다든지 하는 활동을 이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 * 시간을 정해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5. 이야기를 마치며

어떤 그림책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은 바로 부모들의 양육철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 시기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자 하는 부모와 이후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그림책을 건네주는 부모는 고르는 그림책이 다를 것입니다. 감정의 발달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아이들의 사람, 사물을 대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유아기에 있어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넓은 마음을 키우는 아이들로 자라야만 이후에 사회인이 되어서도 재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부모들이 그림책을 골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그림책을 어느 그림책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림책을 보며 느끼는 감동이 모든 어린이들마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림책은 간접경험이며, 직접경험보다 우선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경험한 아이만이 그림책이 주는 감동을 통째로 느끼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 놀게 하는 것 또한 부모의 의무입니다.



1. 우리 아이는 계속 같은 책만 읽는데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가?

답>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계속 읽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좋은 그림책이라고 많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몇권의 그림책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2. 읽어줄 때 어떤 자세로 읽어주어야 하나?

답> 무릎에 앉아서 읽어주거나, 옆에 앉아서 읽어주면 좋습니다. 어린이집은 그림책을 교사가 들고 아이들과 마주보고 읽어주기도 합니다. 그림책을 읽을 때 꼭 책상에 앉아서 읽어야 한다고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읽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3. 전래동화를 들려주라고 했는데, 전래동화는 웬지 슬프고 팔 다리를 자르는 등 잔인한 장면이 많아 읽어주기를 주저하게 된다.

답> 아이들도 여러 감정이 있습니다.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니므로 전래동화가 슬프더라도 읽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님달님'에 호랑이가 수수밭에 떨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어른생각에는 얼마나 잔인한걸까?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른이 그 장면을 상상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나쁜 호랑이가 벌을 받은 것에 집중하고 그냥 죽었으면 죽은 것이지, 어떻게 죽었는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림책의 그림으로 드러난다면 문제는 조금 달라지겠지요.

4. 계속 읽어달라고 조르는데 일하고 와서 한두번이지 힘들다.

답> 어린이책도 어른이 즐겁게 읽어야 좋지, 하나의 일로 해야 되면 당연히 피곤합니다. 아이와 오늘은 몇권을 보자고 약속을 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도 더 읽어달라면, 그 다음날 것을 미리 빌려와서 읽는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5. 동화테이프를 들려주는 것을 어떤가?

답> 원칙적으로는 어른이 들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텔레비전과 달리 그림책은 아이의 적극성이 반영됩니다. 즉 자기가 보고 싶으면 그림책을 펴는 것이고, 더 보고 싶은 곳은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테이프는 이런 적극성을 떨어뜨릴 것이며, 부모와의 정서유대 측면에서도 읽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무조건 테이프만 들려주는 것으로 그림책 읽어주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엄마가 너무 힘들 때의 테이프 사용은 현실적인 대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엄마의 목소리로 녹음해서 테이프를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요?

6. 백설공주, 인어공주, 신데렐라 등 공주류의 그림책을 보는데 공주병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답> 요새 아이들이 공주병에 빠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그림책은 사 주지도 말고 보여주지도 말았으면 합니다. 어쩌면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변했을 수 있습니다. 예쁘니까 행복하게 산다의 내용으로... 그리고 백설공주 등은 디즈니류의 그림책이므로 되도록이면 피했으면 합니다. 이런 그림책만 보는 아이는 좋은 그림책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내용이나 그림이 조악하고, 비디오로 본 것에 비해 더 좋지 않습니다. 집에 있으면 버리도록 하세요.

7. 옛이야기는 장화홍련, 콩쥐발쥐 등 계모를 좋지 않은 이미지가 반영되어 있는데 옛이야기를 읽어줘야 하는가?

답> 옛이야기도 원형이 많이 변질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이야기도 골라 읽어주어야 합니다. 또 어머니들이 다 여자여서 자기가 그전에 보았던 전래동화만 생각하는데 전래동화에도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개척하는 여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그림책을 골라 들려주어야 합니다. 보리출판사의 <옛이야기 보따리> 시리즈를 권합니다.

8. 유우머스럽게 읽어 주어야 하는가?

답> 그림책을 읽어줄 때는 대화체만 남자, 아이, 여자, 성격 정도만 구분해서 읽어주면 좋습니다. 너무 호들갑스럽게 읽어주면 아이들은 그림책은 안 보고, 선생님만 보게 되지요. 그리고 구연하는 사람처럼 못 읽어준다고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9. 우리 아이는 5살인데, 카드 그림을 좋아한다.

답> 대개 연령에 따라 좋아하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린 아이가 보는 그림책을 큰 아이가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보육교사를 위한 성교육 강좌

최근 잇따라 보도된 성폭행 사건들을 계기로 성교육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이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고 그 피해의 대상이 어린이에게 까지 미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아이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성(sex, gender)을 올바르게 알게 하고 아이들 스스로 성과 관련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가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성에 대한 태도와 자세는 영유아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할 뿐더러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영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성에 대한 태도와 사고가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물론이고 영유아들과 장시간 같이 생활하는 보육교사의 성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저희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는 '보육교사를 위한 성교육 강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강좌는 완성된 프로그램의 일방적 제시가 아니라 교사 스스로 성에 대한 의식·태도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수행하는 성교육의 실제 사례를 발표·평가하는 자리입니다. 뜻있는 보육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프 · 로 · 그 · 램

1부 : 교사의 성의식에 대한 자기성찰

교사 스스로 자신이 성에 대한 주관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질문지를 바탕으로 다른 교사와 토론하고 발표합니다. 여성사회교육원 성교육전문가이신 김희은 선생님이 토론을 지도해드립니다.

2부 : 현장교사의 성교육 사례 발표

그간 본회 소속 어린이집 교사들이 현장에서 실시했던 교육사례, 연구와 이번 강좌를 위해 특별히 새롭게 시도해보았던 성교육의 사례를 발표합니다. 현장기록을 바탕으로 활동과정을 자세히 전달합니다. 활동자료와 아이들의 활동 결과물, 기록사진 등도 함께 전시합니다.

▲ 일 시 : 1996년 11월 9일(토) 오후 3시

▲ 장 소 : 미정

▲ 주 최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한국보육정보연구소

▲ 후 원 : 정무장관(제2)실

▲ 회 비 : 1만원(회원 7천원)

▲ 문 의 : 02)275-8506

지상강연

유치원 1년 무상교육에 대하여

송대현 / 전교조 교권국장

우리나라 유아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원화문제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다.

월 수십만원 고액 과외를 받는 유아가 있는 반면, 부모의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길거리에 방치되는 유아도 많다. 올해 전체 만5세 아동 63만명중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은 28만명(21만명 사립, 7만명 공립)이다. 전체 만5세 아동 중에서 취원율은 44%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학부모들의 부담은 엄청나다. 사립유치원생에게 들어가는 사부담교육비는 '94년 통계에 의하면 1년에 193만원이다. 이것은 초등학생 136만원, 중학생 189만원에 비하면 훨씬 많은 돈이다. 그래서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는 엄청난 사교육비 때문에 매일 허덕이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가 부담하는 유아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1994년)의 0.95%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으로 정부가 유아교육에 전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정부의 무관심으로 가난한 집 아이들은 유치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다.

아울러 유치원 교사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받는 보수는 공립교사의 6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것(공립교사의 수준을 유지하라는 것)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유치원 교사의 이직율은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초등학교의 1학년 담임교사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난감해 한다. 속셈학원에 다니던 아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 그냥 집에 있었던 아이... 너무도 다른 환경과 수준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이다. 만일 취학 직전 1년의 유치원 교육이 무상교육이 되면 유치원의 생활기록부가 그대로 초등학교에 전달되어서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의 연계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무상교육의 추진방안은 무엇인가?

우선 의무교육이 아니라 무상교육이라고 한 까닭은, 의무교육이 될 경우에는 굳이 유치원에 취원시키지 않으려는 아동마저 유치원에 반드시 취원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

서 취학전 1년(만5세)의 유치원 교육을 원하는 아동에게는 무상으로 교육하고, 아동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에는 취학토록 하여 융통성을 주도록 해야 한다.

만일 유치원 무상교육을 원하는 아동이 사는 지역에 공립유치원이 없을 경우에는 사립유치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때 들어가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 일체의 경비를 국가가 사립유치원에 대신 납부토록 한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정비 등 무상교육의 준비기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군단위 이하 지역(통합시는 면지역)부터 시작하여 몇년 내에 대도시까지 확대하도록 한다(예: 군단위 이하 지역, 도시지역의 영세민 자녀 ⇨ 5대도시 이하 ⇨ 전국).

우선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공립유치원에서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군단위 이하 지역과 도시지역의 영세민 자녀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부담 경비는 극히 적은 규모가 되어 실시가 가능하고, 일정기간의 여유를 두고 그 기간동안 도시지역의 사립유치원에 무상교육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한편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원하는 아동은 종일반을 운영하여 유치원에서 맡아 보호·교육, 종일반 체제와 관련하여 종일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그리고 교원의 정원을 확보하고, 경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무상 공교육이 될 경우에는 첫째, 현재 50% 미만 수준인 만5세 아동의 취원율을 80~90%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 둘째, 이로 인해 유치원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가 가능하며, 초등학교 초기에 학력관리가 쉽다. 셋째, 유아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빈부간의 위화감이 줄어들고,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 넷째, 사립유치원을 정비하고 그 교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으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의 명분이 생긴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촉진할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은 어떠한가? 과연 교육재정에서 유치원 무상교육에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가능하겠는가? 우선 지금 당장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취학전 1년 유치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해나간다면 정부의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앞에서 보았듯이 면단위 이하 지역과 도시 영세민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면 전체 만5세 아동의 11.4%가 그 대상이 된다. 게다가 면단위 이하 지역의 경우에는 그동안 병설유치원에 다니던 아동이 대부분이므로 추가로 부담할 돈은 거의 없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필요한 무상교육지원비예산을 추정¹⁾하면 97억 2,142만원²⁾이다.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어린이집과의 관계는 어떨까? 무상교육이 된다 하더라도 어린이집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현재 전국 모든 유치원의 수용능력을 모은다 하더라도 50만 정도이다. 이 인원은 만5세 아동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만5세 아동을 수용한다면 그 대신 3세와 4세 아동을 수용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유치원과 보육시설간의 역할분담이 가능하게 된다. 오히려 유아교육체제의 일원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1) 해당 지역 대부분 공립유치원에 취원하는 지역이므로 공립유치원의 수업료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2) 김재웅 『유치원교육의 공교육화』 양서원, 139쪽 인용, 1996.

보육행정

중앙 보육위원회에서 무엇이 다루어졌나

편집부 정리

지난 9월 10일 중앙보육위원회에서는 보육사업 추진경과 및 개선대책과 '96 예산 중간 정산 결과 및 향후 집행계획(안), 주요현안과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되었습니다.

본지에서는 이중 '96 보육사업 지침을 보완·개선한 내용을 요약해서 실습니다. 『우리네 아이들』 3월호에 기재된 '96 보육지침 내용을 참고로 비교해서 보시면 변화된 부분을 알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각 시설 현장에서 주요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그간 보육사업의 추진상 문제점 및 제도 개선 조치

5차에 걸쳐 '95년 4월부터 실태조사 실시후 그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96년 10월까지).

1차 실태조사(95.4.24-4.29)

2차 실태조사(4.24-5.23)

3차 실태조사(7.1-8.31) : 기업

4차 실태조사(8.4-7.16)

5차 실태조사(11.27-12.9) : 용자사업

1. 확충대책의 재검토 수정

○ 직장보육시설 설치계획을 대폭 축소(노동부 협의)

- 주거지 생활권 중심의 민간시설 확충에 주력

○ 종교·학교 부설시설 대신 국·공립 등 시설의 신·증축에 역점

※ '97 공공보육시설 설치 계획 변경(재경원 협의중)

· 종교·학교 부설시설 축소 : 700 - 300개소(400개소 축소)

· 신·증축 : 275 - 425개소(150개소 추가)

2. 경제성 있는 설치공간 확보

○ 건교부, 지자체의 택지개발계획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시 보육시설 용지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사업계획 검토 강화

○ 종교·학교 부설시설 지원수준을 높이고 지원대상도 농·수·축협 및 신용협동조합 등 각종 비영리법인까지 확대

- 설치비 : 최대 1억원(120인 이상 보육시)

- 소요교사 인건비 : 보육교사 정원의 1/2내에서 최대 2명에서 3명까지로 확대

3. 유치원과 동일수준의 지원이 되도록 관련법령 개정(재경원, 농림부, 통상부 협조)

○ 교육법상 학교시설로서 세제감면등 각종지원을 받고 있는 유치원 대비 보육시설의 낮은 지원수준 개선

구 분	유 치 원	보 육 시 설
· 고가교구 구입시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법 제8조)	피아노(10%), 시청각 교재(15%) 등에 대해서 면세	과세
· 시설설치 부담금 (농특법 시행령 제52조의 2)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공시지가의 20%)	50% 감면 (설치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 정부미 공급 (농림부장관의 방침)	저가공급(50%)	저가공급 대상에 미포함
· 전기요금 (전기공급규정 : 한전)	교육용 요금 적용 (일반요금의 90% 수준)	일반요금 적용

· 이상은 관련부처와 협의중임

4. 농어촌 공공보육시설 지원 확대

○ 도시지역대비 보육료의 50% 수준도 수납하지 못하는 농어촌지역 시설의 운영난을 고려 차등지원방안 검토

○ 추가소요재원은 농어민후생복지증진을 위한 농특세사업투자계획(1조8천억원) 조정을 통하여 조달(재경원, 농림부 협조)

5. 보육시설의 지역별 균형 배치

○ 보육시설의 인가조건에 보육수요를 추가하여 지역별 균형설치를 유도하고 있으나, 일선 행정기관에서 민원유발등 사유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일선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거리제한제 신설등 제도 개선 방안강구(법령 개정 필요)

6.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제고

- 2000년까지 국·공립유치원교사 수준으로 처우 개선(국민복지기본 구상의 실천계획에 반영)
- 대학재학중 4주 이상의 보육실습을 이수한 자에게만 보육교사(1급) 자격인정('98.3.부터) 및 승급교육 제도 신설

7. 보육사업 지원체계 강화

- 보건복지부에 보육과 신설을 추진하고, 내무부와 협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조직 및 인력보강 적극 추진(서울, 경기, 경남, 제주 보육계 기설치)
- 보육에 관한 각종 정보제공 및 상담기능을 수행하는 보육정보센터를 '98년까지 15개 시·도에 국고보조 설치
 - 보육지도원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소규모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지원, 대국민 정보제공 및 보육시설의 보육프로그램 등 질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기능 수행

8. 민간보육시설 지원 확대

- '96년 종교·학교 등 부설시설 설치지원에 따라 예상되는 잉여재원을 교재교구비로 최대한 지원('93년 61억, '94년 47억, '95년 31억 지원)
- 민간보육시설 운영난을 감안, 국민연금기금 대여이자율 추가 인하 및 재정에서 결손액 이차보전 검토(재경원 협의)

9.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 금년에 개발 완료된 영아보육프로그램, 급식프로그램을 전체 보육시설에 보급(공공시설 무료, 민간시설은 유료원칙)
- 방과후 아동 보육프로그램등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그램을 매년 2종 이상 신규 개발(용역)

<주요 현안 과제>

1. 방과후 아동보육 활성화 대책

1) 대책수립의 배경과 필요성

- 부모취업시 아동이 방과후에 적절히 보육받을 수 있는 시설부족으로 아동의 건전육성과 여성의 사회참여에 장애요인
 - 취업모를 가진 학령기 아동(6-12세)은 87만명으로 추산('95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

<초등학교 학년별 아동수>

(천명)

총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3,905	624	620	623	647	651	740

- 특히 보육기능이 취약한 맞벌이나 편부·모가정과 저소득층의 방과후 아동은 학습부진, 각종 사고와 비행유발환경에 쉽게 노출되므로 국가개입이 불가피한 실정임
 - 생계곤란등으로 방과후에 사설학원 수강도 곤란한 요보육대상 아동은 9만명으로 추산됨(보육료지원 저소득층 영유아수 기준)
- 방과후 아동보육(지도)제도 도입은 세계화추진과제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10대과제('95.10)의 하나로 추진
 - 여성개발원 주관 시범사업 및 공청회 결과 복지부 총괄추진 합의

2)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확충 계획

향후 3개년('96-'98)간 방과후 아동시설 2,000개소를 신설하여 72천명의 방과후 아동을 추가보육 ⇨ '97년에 방과후 아동보육수요를 측정하여 장기정책에 반영(보사연과 협조)

<국고보조 시설>

○ 입지선정등

- 달동네등 저소득층 밀집지역 우선
- 영유아보육시설(공립·법인), 복지관, 자활지원센터 등 각종 복지시설과 종교·학교시설 등 가급적 기존시설을 증축, 개·보수 활용

○ 확충계획(3년간 600개소)

	'96	'97	'98	계
기존 국고보조 보육시설 부설(증축)	10	20	100	130
복지·종교·학교시설 등 부설(개보수)	90	180	200	470
소계	100	200	300	600

○ 국고 보조지원

- 기존 공립 및 비영리법인 설립시설 증축
 - 개소당 80백만원(40평규모)의 시설비, 교사인건비 50%지원
- 복지·종교·학교시설 부설
 - 개소당 25-30백만원의 개보수
 - 보육장비, 교사인건비 50% 지원

○재원 및 확충계획

구 분	재원 및 확충계획				보육능력(명)			
	'96	'97	'98	계	'96	'97	'98	계
개소(개)	100	200	300	600	3,000	6,000	9,000	18,000
소요(억원)	11	21	46	78				

• '96-'97년 소요재원은 3개년 계획 재원에서 충당, '98년은 추가확보

<민간시설>

○기본원칙

- 설치비는 국민연금기금에서 용자
- 보육료 수입으로 운영 원칙

○확충계획(3년간 1,400개소)

	'96	'97	'98	계
신축	40	60	100	200
기존 민간보육시설 부설(증축)	160	240	400	800
기존 민간보육시설 개방(기능보강)	50	150	200	400
소계	250	450	700	1,400

○용자규모

- 신축
 - 개소당 평균 100명(3백만원/평, 최대 300명기준 9억원까지) 규모의 건축
 - 장비비 및 교재교구비
- 기존 민간보육시설 부설
 - 개소당 평균 40명(3백만원/평, 최대 200명 기준 6억원까지)의 시설·장비비 및 교재교구비
- 기존 민간보육시설 개방
 - 개소당 평균 60백만원의 개보수 및 교재교구비

○재원(국민연금기금) 및 확충계획

구 분	재원 및 확충계획				보육능력(명)			
	'96	'97	'98	계	'96	'97	'98	계
개소(개)	250	450	700	1,400	9,900	17,100	27,000	54,000
소요(억원)	342	558	900	1,800				

• '97-'97년 소요재원은 3개년계획('95-'97)의 민간보육시설 설치 용자재원(4,500억원)에서 충

당, '98년 소요재원은 추가확보 필요

3)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학교부설 방과후시설의 민간위탁운영

- 방과후 아동교실을 학교장책임으로 운영시 전문성 부족, 업무량 과다 및 아동사고 시 책임문제 등으로 설치부진이 예상
- 인근 보육시설장등 보육전문가에게 위탁운영방안 강구

○시설장 양성교육 확대

- 보육시설장 무자격자로서 방과후 아동전담시설 설치자는 시설장 양성교육 조치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의 시간제(일시)보육 허용조치

- 오전시간동안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보호자 질병, 파트타임 근로자 등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1일 3-4시간의 시간제(일시)보육을 제도적으로 허용

II.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계획(안)

1. '96년도 보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비 6천만원을 활용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아래의 보육프로그램을 개발

-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
- 안전 보육프로그램

2. '96년도 보육프로그램 보급

- 영아보육 프로그램(1절 8권)
- 급·간식 프로그램(1절 3권)

III. 모범보육시설 지정·운영 추진계획

1. 소요예산

- 일반 회계 : 75백만원(국고보조 : 서울 16%, 지방 48%)
- '96년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97년부터 소요예산 확보

2. 추진 일정

- '96.4-5월 중순 : 모범보육시설 선정기준 마련
- '96.5-9월 : 시·도에 지침시달 및 모범보육시설 선정(평가단 구성, 출장평가, 평가
관련자료 제출, 보육위원회 심의)
- '96.10-11월 : 교재교구비 특별지원
- '96.12월 :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모범보육시설 운영평가회」 개최 및 평가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IV. 보육교사 교육훈련 개선대책(안)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1. 보육교사교육원의 교육수준 제고

- 우수교육원에 대해서는 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 또는 보육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설립허가 및 신축비 지원 등 최대한 독려
- 수탁사무를 현저하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는 교육원은 시정조치, 관계자 인
사조치 요구, 위탁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지도 강화
- 표준화된 교재의 개발·보급 추진

2. 보육교사 재교육 유도

- 교사의 교육기간동안 담당아동을 대신 보육할 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워 승급교육을
제외한 재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재교육시간의 탄력적 운영(주말교육등), 대체교사의 확보(교육원생 활용등) 등 다각
적인 지원방안 강구 및 재교육비용의 국고보조 추진

3. 자격증 제도 도입 검토

- 현재는 관련학과 졸업자 및 교육원 이수자에게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을
뿐 별도의 자격증제도는 없음
- 보육교사를 전문직업인으로 체계적으로 양성·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육법에 의한 교
원과 마찬가지로 보육교사 자격증제도의 도입 필요(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

4. 전문대학 이상에 보육학과 설치 유도

- '96.9.현재 보육학과가 설치된 대학은 2곳에 불과(동남보건전문대, 안동전문대)
- 대학에 보육학과 설치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교육부와 협조하여 설치 지원방안 강구

V. 보육사업 관련 법령·제도개선(안)

1. 보육시설 확충기반 원비(건축관련)

- 택지개발지구내 보육시설 설치가능 용지 확대
- 공동주택단지 조성시 적정규모의 보육시설 설치 지도
- 개발제한구역내 보육시설 설치규모의 합리적 조정

2. 각종 세금·부담금·공과금 등 감면(유치원과 동일수준)

3. 보육교사 관련제도 개선

- 대학재학시 보육시설에서의 교육실습 인정
- 유치원교사 자격증소지자의 상급자격취득 교육기회 부여(교육부 협조)
- 국립대학 부설 보육교사 교육원의 독립재산제 준수

VI. 일시적인 정원의 보육 허용방안

1. 현황

-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육사업지침에 의거 정원의 보육을 금지

2. 문제점

- 보호자의 사고, 질병, 출산, 수행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정원의 보육이 금지되
어 아동의 건전육성을 저해.

3. 개선방안

- 3개월 기간내에서 일시적으로 정원의 5%까지 보육을 허용
- 보육대상은 보호자의 사고, 질병, 출산, 수행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며, 보
육시설 입소후 즉시 시·군·구청에 보고
- 정원의 보육으로 인한 보육료 수입은 시설회계에 전액 편입하고 교재·교구 구입,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등 보육의 질적 수준개선 목적에만 사용

<별첨> 방과후 아동 담당교사 보수교육과정안

영역	과목	편성(시간)
기초	방과후 아동보육의 이해(현황과 문제)	2
	아동발달심리	2
	초등학교 교육과 방과후 보육	2
	초등학교 1·2·3학년 교육과정	4
계획	방과후 아동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교재·교구 및 환경구성	2
	방과후 아동 보육교사의 역할	2
	방과후 아동 보육프로그램 계획	2
운영	아동상담 및 생활지도	2
	교과·학습지도(예·복습 및 숙제지도 포함)	2
	특별활동지도	6
	놀이활동지도	4
	일과운영	2
	부모교육	2
평가	지역사회 이해와 자원봉사자 활용	2
	방과후 아동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활동 평가	2
계		40

'우리네 방앗간'을 이용합시다.

'우리네 방앗간'에서는 그동안 교통문제로 공급이 원활치 못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최선 최 재정사업국장이 손수 운전을 배워 경인지역정도는 배달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경인지역의 회원 여러분께서는 '우리네 방앗간'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은 지역위원회별로 ① 매달 '우리 맥 먹는 날'을 정하여 신청하기 ② 생일잔치는 매월 동일한 날에 생일떡케익을 신청하기 ③ 영아식으로 미숫가루를 신청하기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용시 주의할 점은 미리 1주일전에 연락을 주셔야 차질없이 배달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주에 한번 정도는 지역위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모두 모색해 봅시다.

품목 : 각종 떡류, 생일떡 케익, 고추가루, 참기름(7,000원/병), 들기름(4,500원/병), 미숫가루(5,000원/Kg).

어린이집·놀이방 개원에서 운영까지

서명 : 어린이집·놀이방 개원에서 운영까지

역은이 : 서정은 외

추천인 : 임재택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감수인 : 남미영, 이현경, 양은희, 이은애, 박금희

출판사 : 도서출판 한보연, 1996/7

판형 : 신국판, 221 Page

가격 : 8,500원

◆ 책 소개

한국보육정보연구소는 부모와 아동보육사업 관련자들의 문의와 상담, PC통신을 통한 정보 제공 및 교류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보육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원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받은 질문과 상담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6년 4월 '어린이집, 놀이방 개원요령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자료를 보완하여 신간 '어린이집, 놀이방 개원에서 운영까지'를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은 어린이집, 놀이방을 개원하여 운영하려는 예비원장이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를' 정도로 복잡한 아동보육사업과 대면하게 되고 자신의 노력과 외지를 북돋아 줄 기관의 도움이이나 자료의 부족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해결하려는 고민으로부터 출발, 예비원장들에게 아동보육사업의 이론적 접근과 더불어 운영의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엮었습니다.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운영자(원장)교육 내용, 지역 선택에서 고려할 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규모별 기준 예산자료 등 현장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 책 내용

제1장 보육사업 개론 1. 어린이집, 놀이방은 왜 필요한가 / 2. 보육시설의 역할과 기능, 현황 / 3. 보육시설의 성격 정하기

제2장 개원을 위한 준비 1. 어디에 열 것인가? / 2. 누구랑 낼 것인가? / 3. 어떤 시설로 운영할 것인가? / 4. 보육시설 신규 설치 인가, 신고 신청

제3장 아동의 삶의 공간인 보육시설 만들기 1. 기본 생활 공간 구성 / 2. 보육시설 놀이공간 구성 / 3. 필요 물품을 구입할 때 고려할 점

제4장 시설 운영 어떻게 할까? 1. 원아 모집 / 2. 유아 적응 기간 동안의 교육 / 3. 교육과정 계획 및 운영 / 4. 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 / 5. 부모교육

제5장 재정 및 사무관리 1. 재정 관리 / 2. 사무 관리 / 3. 세무 관리

부록 식품의 일량가 / 보육교사 양성교육기관 / 나이에 맞는 좋은 그림책 / 영유아보육법 / 관련기관 안내

좋은 그림책 소개

눈오는 날

에즈라 잭 키츠 글, 그림 / 김소희 옮김 / 비룡소 / 6,000원

추석을 앞에 두고 「눈오는 날」을 소개하려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지를 통해 그림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교사들이 재미있게 읽고 그 그림책을 사서 아이들에게 보였주었으면 해서입니다. 회지가 만들어져 교사가 읽고 이 그림책을 사는 시간까지 계산하니, 일찍 소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소개합니다.

제가 일하던 오손도손에기방은 산동네에 있었습니다. 평평 눈 내리던 날, 우리 아이들과 교사는 모두 산동네 좁고 비탈진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비탈진 골목에서 선생님은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눈을 뭉쳤고, 장갑 낀 손으로 아이들은 조그만 눈을 뭉쳐 눈싸움을 하고 놀았습니다. 평평 내리는 눈을 맞으며 서로 뭉친 눈덩이를 피하느라 넘어지고 미끄러져도 신났습니다. 서로 뭉친 눈덩이를 옷 속에 집어 넣고 차가움에 퍽퍽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녀석들이 집어넣은 눈송이가 녹아내리던 등줄기의 느낌을 잊지 못합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 피터가 눈을 떠보니,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피터는 신이나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지요. 눈 위를 이렇게 저렇게 걸어도 보고, 눈사람도 만들고, 눈천사도 만들고... 눈뭉치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엄마에게



오늘 놀았던 일을 이야기도 하고, 눈뭉치를 찾아보지만 녹아버렸어요. 잠들면서 밖에 눈이 녹을까 걱정하지만 그 다음날도 함박눈이 쏟아졌습니다.

「눈오는 날」은 에즈라 잭 키츠 작품으로 칼데콧 상을 받은 그림책입니다. 이전에 보았던 그림책과는 그림의 기법과 소재가 다릅니다. 그동안 우리는 좋은 그림이라 하여 세밀하고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을 주로 봤는데 이번에는 대충 쓱쓱 그리고 오려 붙이고 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눈의 느낌이 읽는 사람의 마음에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날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자연스럽게 온 몸으로 느끼는 아이만이 인간의 오만함과 자연의 지배자로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어서, 우리 어른들은 예써 자연을 찾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그림책은 그런 면에서 보자면 좋은 그림책입니다. 눈을 대하는 아이의 감정이 작가의 그림에서는 포근한 눈으로 그려져 있고, 재미나게 놀았던 그 눈이 녹아버릴까 걱정하는 아이의 마음은 얼굴표정이 그려있지 않았어도, 아이의 몸짓에서 느껴집니다. 한장을 보면 다음장이 궁금하리 만큼 구성이 잘 되어있고, 그림과 글이 잘 어울리게 배치되어있으며, 간결한 글들은 이 그림책을 평하는 모든 사람들의 칭찬입니다.

다가올 겨울을 이 그림책과 함께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피터의 즐거웠던 눈 장난은 직접 눈밭에서 돌아본 아이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눈이 오면 밖으로 나가 눈을 맞아보기도 하고, 즐겁게 놀아보세요. 직접 경험만큼 좋은 경험은 없겠지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그림책에 흑인아이가 주인공으로 나온 것은 이 그림책이 처음입니다.

그림책을 보여주고, 아이들의 반응을 글로 보내주세요. 또는 교사가 읽어주며 느낀 소감을 보내주세요. 결국 독자는 어린이이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평가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소감을 보내주시면 「그림책을 좋아하는 교사모임」에서 좋은 그림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소개 : 오윤정(그림책을 좋아하는 교사모임)



건강하게 살아가

- 어린이평화학교 어린이건강교실 -

어린 아이의 똥에 대하여(2)

어린이건강교육연구회*

1. 숙변(宿便)에 대하여 - 모든 알레르기의 원흉

지난 9월호에 우리 몸의 건강과 질병에 장내의 숙변이 상상 외의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이유를 자세하게 검토해 보기로 하자.

숙변이란 무엇인가

숙변이라 하면 보통 제때에 나오지 않는 똥이 장관벽에 눌러 붙은 고변(古便)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라 할 수 있다. 생명체의 몸은 한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장내에는 수많은 종류의 세균들이 있어 이들 똥을 분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똥이 오랫동안 장관벽에 머물러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다면 무엇을 숙변이라 할 수 있는가?

자연의학의 오랜 임상적 결과 숙변은 "위장의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장에 오랫동안 부담을 주어진 경우에 장관내에 머무는 음식물의 찌꺼기나 세균류를 포함한 장내의 내용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숙변이 장 안에서 썩는 것이다. 숙변은 지난호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생활양식에서 비롯된다. 장의 운동을 초과한 음식물의 양과 장의 요구를 무시한 음식물의 내용, 운동의 부족과 두터운 옷 등등이 장관의 운동을 약화시켜 숙변이 생기게 한다.

장관 내에 숙변이 고이게 되면 장과 장관 안의 세균들은 숙변을 해소하기 위해 격렬한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종종 복통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설사를 일으키기도 한다. 보통 일상적으로는 숙변을 해소하기 위해 장관 안에 세균의 활동이 왕성하게 되는데 이 세균들의 왕성한 활동의 결과 세균들이 분비한 독소가 장내에 많아지게 된다.

또한 장의 요구를 초과한 장의 이상운동으로 하여 장점막 안에 보이지 않은 상처들이 생긴다. 이 보이지 않은 작은 상처들을 통해 장관의 운동은 더욱 악화되고, 또한 이 상처들을 통해 세균들의 독소와 부패 발효한 음식물의 찌꺼기가 혈액을 통해 온 몸을 돌아 많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는 알레르기가 하면 피부병만 생각하는데 원래의 알레르기는 몸 안의 면역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몸 안에 들어오는 일체의 이물질에 대하여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입을 통하여 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몸의 입장에서 일단은 이물질이 되는 것이다. 우리 입으로 들어간 음식물은 소화 과정을 통해 우리 몸에 이물질이 아닌 것으로 동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몸의 면역방어기능에 이상이 생긴 사람은 갖가지 음식물에 대해 과민반응을 일으킨다. 그 과민 반응은 반드시 피부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갖가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자주 감기에 걸린다거나, 손발이 차다거나, 두통이 자주 온다거나, 콧물, 재치기, 기침, 두드러기가 잘 생긴다거나, 소화 불량이나 자주 오는 것 등등 몸의 과민반응의 현상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이 실은 몸의 과민 반응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몸의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질병에 대한 일체의 대응은 임시 땀질밖에 안되는 것이고, 땀질만 계속하는 과정에서 몸의 면역방어기능은 더욱 악화되는 것이다.

몸의 온전한 상태와 건강은 우선 깨끗한 장관의 상태, 즉 숙변의 배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숙변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숙변의 원인은 현대의 소위 문화적인 생활양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많기 때문에 숙변을 배제하기란 몹시 어려운 일이다. 현대에 올수록 기괴한 병이 많아지고 난치병이 많아지는 이유도 현대의 생활양식의 결과 장 안에 숙변이 많아지는 것과 관련이 많다고 볼 수 있다.

2. 어린 아이의 태변(胎便)

어린 아이의 경우 태어날 때 태변(胎便)의 배출이 잘 되지 않아 이후 잦은 잔병치레를 하게 되고 체질이 약한 아이가 된다.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에서도 아이의 몸의 요구와 산모의 원래의 몸의 요구를 무시한 출산 방식으로 하여 태변을 제대로 배출하는 아이는 드문 형편이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뜨거운 물로 목욕을 시킨 다음 통풍이 잘 안되는 배내옷을 입히는 것으로 하여 갓난 아이의 피부의 호흡이 많이 장애를 받게 된다. 거기에서 태어난지 48시간 동안은 물만 먹다가 이후에 나오는 어머니의 초유를 먹어야 하는데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 산모가 출산을 한지 48시간만에 나오는 초유는 거의 하제(下

劑)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로 아이의 대변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초유를 먹고서 많은 양의 새까만 대변을 배출한 다음 아이는 젖을 먹든지 분유를 먹어야 하는 것이다. 이 대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한 아이의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을 비롯하여 기관지 천식, 장폐색과 염전(장이 꼬이는 것), 장염, 장탈출, 맹장염 등등이 생기기 쉽다.

어른들은 아이는 약한 존재, 따라서 으레히 잔병치레가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된 상식이며, 오히려 어른의 이런 잘못된 선입견이 아이들의 잔병치레를 더욱 부추기는 일도 일상생활에서 많은 편이다. 어린 아이의 경우도 장이 깨끗하면, 또한 장이 깨끗할 수 있는 생활을 평소에 어른들에 의해 배려 받고 있다면 아이는 언제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이에게 열이 나면 몹시도 두려워 한다. 열이 심하면 경기를 해서 뇌에 이상이 있거나 않을까, 다른 질병들로 진행되거나 않을까 근심이 되고 또 불행하게도 의사나 약사들에 의해 그 근심이 더욱 부채질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물론 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이 나는 것이고 아이들인 경우 몸의 반응이 어른에 비해 급속도로 진행이 되어서 열이 나는가 싶은데 뇌의 이상으로 가는 경우도 요즈음의 아이들에게는 흔한 일이다.

그러나 열이 원인이 아니며, 모든 아이가 열이 난다고 모두 기침이나 폐렴, 심장병, 뇌막염 등등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아이가 그런가? 대체로 장이 안좋은 아이가 그렇다. 평소 변비이거나 설사가 잦은 아이, 피부가 약한 아이들이 열이 났을 때 무분별하게 해열제나 항생제를 쓸 때 다른 합병증을 일으키기 쉬운 것이다. 따라서 평소에 아이들이 장이 좋아지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3. 장과 몸의 다른 기관과의 관계

1) 장과 뇌

우리가 두려워 하는 뇌출혈, 즉 중풍은 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뇌출혈은 장의 숙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배의 오른쪽 대장에 숙변이 고이면 오른쪽 뇌에 출혈이 일어나 왼쪽 몸에 반신불수가 오고, 왼쪽 대장에 숙변이 고이면 오른쪽 몸에 반신불수가 오는 것이다. 그리고 평소에 만성두통이 있거나 편두통이 있는 경우도 숙변과 관련이 많은 것이다.

2) 숙변과 고혈압 - 변비로 인한 숙변은 혈압을 높인다.

3) 손발의 냉증과 숙변

숙변이 고이면 뇌출혈을 일으켜서 이것이 주로 사지(四肢)의 운동 중추신경을 침범하

여 그로 인해 팔과 다리의 냉증이 일어나는 것이다. 평소에 손발이 찬 경우 아무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을 먹고 몸을 따뜻하게 해도 냉증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장의 숙변이 제거되는 생활양식으로서의 전환이 되지 않고서는 냉증의 치료는 불가능한 것이며, 사지의 냉증은 이후 나이가 들었을 때 중풍의 전조라고도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4) 지질 - 변비, 설사가 원인이다.

5) 눈과 장

평소에 눈동자가 맑지 못하여 조금만 피곤해도 눈의 피로가 자주 온다거나 눈물이나 눈곱이 자주 끼는 경우, 심한 난시나 약시, 기타의 녹내장, 백내장 등등 장의 숙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6) 입안의 질병과 장

변비는 구내염과 치은염(풍치)을 일으키고, 입안에 악취가 나게 한다. 입에서 나는 입냄새 원인의 거의 95%는 장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소 트림이 잦은 것도, 메스꺼움을 자주 느끼는 경우도 거의 장 안의 숙변으로 인해 장 안의 부패가스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방귀로 나가야 하는 것이 장안의 숙변으로 인해 정상적인 배출을 하지 못하고 입으로 역행하게 되는 것이다.

7) 미용과 변비

여드름, 기미, 어우러기, 부스럼 등등 깨끗하지 못한 피부는 숙변이 원인이 되어서 생긴다.

4.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생활상의 몇가지 조건

1) 산물(생수) - 살아 있는 물

우리 몸은 60~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루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은 보통 한 되(약 1.8ℓ) 정도이다. 물의 양이 부족하게 되면 대장이 건조하게 되어 변비가 생기거나 똥이 딱딱하게 되어 똥을 누기가 어렵다. 또한 몸 안에 구아니딘이라는 독소가 생겨서 감기나

요독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물의 양 뿐만 아니라 물의 질이 중요한데 최대의 조건은 물이 살아 있어야 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물질 중에서 물만큼 신비로운 존재도 없으리라. 물을 끓여버리면 물의 분자 구조에 변형이 온다. 물이 다른 몸 안에서 생리활성이 가장 높은 형태가 육각수일 때다. 그런데 일단 끓여버리면 이 육각수의 형태가 부서져서 몸 안에서의 물의 생리활성기능이 떨어진다. 이미 부서져버린 물의 분자구조는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마시는 수도물은 그냥 먹기가 역겨울 뿐 아니라 물을 소독할 때 사용하는 염소계 살균제는 간장 장애와 아울러 발암성을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은 이를 제거하기 위해 끓여 먹는다(물 속의 염소는 끓이게 되면 대부분 날아가 버린다). 반면 정수기의 물은 물 속의 미네랄까지도 걸러내기 때문에 썩 안심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어쨌든 우리는 물조차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매우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살아있는 물을 마실 것인가? 특히 대도시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인데 필자는 가까운 산의 물을 이용하라고 권하고 싶다. 산의 파괴가 심각하지 않은 산에서 나오는 물을 떠다가 마시는 것이다. 물론 그것조차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다. 중금속과 대장균 등등 우리를 위협하게 하는 요소가 많다. 그러나 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살아 있는가의 여부이다. 산물을 떠다가 그냥 마시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지 않나 싶다.

어린 아이에게도 끓이지 않는 산물을 그냥 먹이고, 분유를 먹이는 경우에도 그냥 그 물에 타서 마시게 하는 것이 좋다.

육각수의 살아있는 물은 우리 몸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일을 수행하는데 특히 장의 운동을 촉진시킨다. 물은 대체로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끓이지 않는 물과 끓인 물을 비교할 때 전자는 마실 때 시원하지만 정작 우리 몸 안에서는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게 된다. 반면 끓인 물은 마실 때 시원하다는 느낌이 별로 없는데 비해 몸 안에서는 몹시 찬 성질로 작용하여 몸을 차게 만든다. 그래서 몸이 차고 소화가 잘 안되는 사람은 식사 전후로 1시간에는 끓인 물을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2) 날 채소, 과일 - 살아있는 야채, 과일

야채나 과일에는 섬유소와 우리 몸의 오장육부의 연동운동에 필요한 절대적인 영양소인 유기수산이 많다. 그런데 야채를 끓여버리면 유기수산이 무기화되어 오히려 오장육부의 운동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고, 삶은 야채의 무기수산이 신체내 각 기관에 침착되어 관절염이나 류마치스, 기능저하 등을 일으킨다. 어릴 때부터의 화식(火食)은 장관의 운동을 약화시켜 숙변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숙변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다.

야채나 과일이 풍부할 때 가급적이면 조리하지 않은 채로 날 것 그대로 먹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들여야 하는 것이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야채나 과일을 갈아서 줘도 좋

을 것이다. 아이들의 잘못된 식습관과 변비는 산물 마시기와 야채나 과일 먹기로 대부분 고쳐진다고 본다.

3) 배를 차게 할 것

이는 차게 먹이라는 것이 아니다. 피부에 관한 것이다. 즉 잠을 잘 때나 옷을 입힐 때 너무 배를 따뜻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배가 따뜻하면 장관의 운동이 늘어져서 그만큼 숙변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평소에 아이가 잘 때에 일부러 배를 따뜻하게 하려고 자꾸 배를 덮는 습관은 그만 두는 것이 아이에게 좋다. 그러나 단, 뱃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나치게 차면 안된다. 냉장고에 두었던 물이나 음료수 등은 오히려 장의 운동을 약화시켜 소화불량과 복통의 원인이 된다.

5. 어린 아이를 위한 장 활성화운동

1) 허리붕어운동

하루에 한 두 번 옷을 갈아 입힐 때나 기저귀를 갈 때 아이의 허리 바로 밑의 골반을 양손으로 잡고 좌우로 흔들어 주는 것이다. 20~30번 반복하는 데 20~30초면 된다. 허리붕어운동에 의해 아이의 척추가 바로 될 뿐만 아니라 장 안의 내용물이 자극에 의해 골고루 분포되어 아이들에게 흔한 장중첩이나 장염색 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또 당연히 변비가 예방된다. 변비가 있는 경우 자주 허리붕어운동을 시키면 놀라운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허리붕어운동은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할 때도 2~3분 정도 실시하면 그냥 저절로 복통이 사라진다.

2) 거드랑이 간지럽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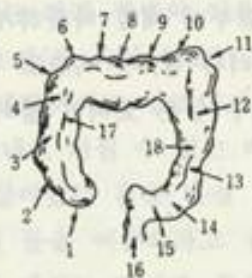
이것도 하루 한 두 번 허리붕어운동을 시키면서 연달아 실시하면 여러가지 면에서 좋다. 어린 아이의 거드랑이를 간지럽히면 아이는 까르르 웃는 것과 아울러 다른 운동하지 않는 기관들의 운동이 활성화되어(특히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좋아져서) 기관지 천식이나 장의 약화에 의의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토란고약 찜질

장이 특히 나쁜 아이의 경우 토란고약으로 복부를 찜질하는 것이다. 토란고약을 구해

서 배에다가 2~3시간 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토란고약의 작용에 의해 장 안의 독소가 밖으로 나오게 된다. 토란 고약 점질을 종종하게 되면 고질적인 장의 문제도 의외로 쉽게 극복된다.

6. 참고 그림 - 장과 우리 몸 각 기관과의 관계



- | | | | |
|---------|-------|------------------|----------|
| 1. 뇌하수체 | 6. 간장 | 11. 비장 | 16. 전립선 |
| 2. 흉선 | 7. 담 | 12. 신장부신 | 17. 귀, 눈 |
| 3. 갑상선 | 8. 심장 | 13. 생식기 | 18. 골반 |
| 4. 식도 | 9. 폐장 | 14. 고환(남), 난소(여) | |
| 5. 상피소체 | 10. 위 | 15. 방광 | |

그림 1-1. 숙변이 권 장소에 따라서 생기는 병



그림 1-2. 숙변과 관계되는 것

편집자주 : 어린이건강교육연구회는 어린이평화학교 어린이건강교실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건강교과 실습을 전달하고 있는 자율학습 모임입니다. 어린이 몸의 요구와 행로, 어린이 몸의 구조와 특성, 어린이 식생활과 어린이 몸과의 관계, 식생활 개선 등을 통한 어린이 건강 증진과 어린이 성인병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건강교육연구회는 한 몸짓기건강요법-몸의학건강증진법에 입각해서 몸건강체조, 민간자연 건강요법, 자연산 식이요법 등을 어린이들 스스로가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지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실 때에는 어린이건강교육연구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할 곳은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81-28 / 전화 : (02)882-4705, 팩스 : (02)878-4624입니다.

연장△식

동근나라어린이집의 어린이문화 만들기

편집부

『지역보육운동』을 감명깊게 읽었던 교사라면 지역순회 인형극단의 어린이문화운동을 기억할 것이다. 지탁연 교사들이 좁은 의미의 보육운동 차원을 넘어, 모든 아이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결의하고 다양한 실천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동근나라어린이집 교사들이 동네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문화의 장을 여는 인형극 공연을 하였다.

지난 9월 14일 미아동사무소 강당에 350명이나 되는 동네사람들과 아이들이 모였다. 요즈음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시간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열린' 문화의 장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더욱이 동네에서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라는 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나마 있는대로 상업화되어 돈을 주고 사지 않는 한 문화의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돈줄 든든한 데서 돈을 쳐들여 만드는 대규모 기획공연이 열린 문화입네 하고 행세하는 판에, 열려있으되 특정한 소수에게만 열려있는 닫힌 문화가 아닌 그야말로 말 그대로 동네에 열어 놓은 아이들의 문화판! 우리들이 바라고 그리던, 하지만 지금 당장은 여러가지 악조건으로 실현해내기 어렵다고 생각하던 그 판을 열어 놓은 동근나라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다.

오전·오후 두 차례에 걸쳐 상연된 인형극은 오전에 엄마 손을 붙잡고 온 유아들과 오후에 물려온 초등학생들로 붐볐다. 전문 인형극단 '보물창고'에서 준비한 인형극 '피노키오'가 상연되었고 어린이집에서 준비한 아이들의 공연도 있었다. 초청장을 받은 인근의 어린이집에서도 조그만 공연을 준비해 와 그 자리가 더욱 뜻깊었다.

가정이나 어린이집, 학교만이 아이들의 삶의 공간이 아니다. 동네와 지역 또한 아이들의 삶의 공간으로 다시 조명되어야 한다. 도시 속에도 자연을 가꾸고 아이들의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나가야 하겠다. 우리가 지역이라는 터전을 살맛나는 삶의 공간으로 바꾸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 처놓은 가정의 울타리, 어린이집의 울타리, 학교의 울타리를 의식 속에서 없애 버려야 한다. 우리 석구,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 우리 학교 아이들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네 아이들'을 다 볼 줄 알아야겠다.

심리학 명문

601호 아줌마의 탈서웅기

남명자 / 본회 교육연구부원

청강문화산업전문대, 인예보육시설훈련원 강사

윤구병 선생님의 "실험학교 이야기"를 읽고나서 '와! 정말 좋다. 내가 꿈꾸는 이상학교의 모습이다'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고 공동체 속에 녹아 살아 숨쉬는 교육,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확실한 현재의 시간과 자신을 죽여야 하는 획일화된 경쟁교육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보다 잘 해보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구성해 볼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있는 교육이 맘에 들었다. 그리고 도시환경에서 죽어가는 인간의 감동과 감각을 산, 바다, 들이 어우러진 자연이라는 교실에서 느끼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가 맘에 들었다.

"기회는 찬스" 온 가족이 교회수련회를 가는 때를 틈타 책에서 읽은 "실험학교"를 냄새라도 맡고 싶어 변산반도를 향해 출발했다. 친구랑 만날 지점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기사 하시는 말씀, "아가씨! 남자 만나러 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나는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도시분위기가 휴가분위기를 풍기는 옷이나 모자, 가방은 모두 빼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무난한 일상복, 후질구레한 가방, 들에서 일할 때 쓰는 밀짚모자로 위장(?)하고 나선 내 전략이 성공이구나 싶어 속으로 '잘됐네' 하면서도, "아저씨! 저 양화대교 건너서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요, 그 소리 들으니까 다리 건너지 말고 한강에서 뛰어내려야겠네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은 여자의 수치라고요."하며 농담을 했다.

이런 소리 말고도 나 혼자 택시를 타게 되면 택시기사들로 부터 이런저런 소리를 들곤 했다. 대충한 화장에, 무난한 무채색 계열의 정장차림, 큰 가죽가방을 들고 타면 나보고 "선생님" 아니냐고 한다. 늦은 밤 화사한 빨간 원피스에 목걸이나 귀걸이 등 악세사리 하나 달고 타면 나보고 "디자인 계통에서 일하고 있지 않느냐?"고 한다.

나 남명자는 속(마음씨, 성격, 가치관, 지식 등등...)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미지에 의해 3초 안에 결정되는 것이다. 누군가가 "현대사회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 대신 기호와 상징이 교환되는 시대"라고 했던가.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 착한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성격이 좋은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보다는 무슨 대학 무슨 과를 나왔는지가 더 중요하고 그 사람이 착한지 보다는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는 사회다.

나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가슴으로 만나지 않고 기호와 상징만이 교환되는 도시를 떠나 "실제" 자연의 세계로 떠나고 싶었다. 그러나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내가 생각한 그 "실제 자연"의 세계라는 것도 결국 나의 편견과 오해가 뒤섞인 하나의 "이미지"를 갖고 떠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변산반도의 "실험학교"에서 학교는 "ㅎ"자도 없었다. 앞으로 만들 학교 부지만 약간 확보하고 있었다. 거기엔 사람 키만한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 잡초는 실험학교의 현상향을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었다. 그 잡초가 장차 어떤 모습이 될지는 현재 변산에 몸을 던지며 공동체를 만들어가려 하고 있는 사람들의 오랜 공동작품이 될 것이다. 지금 현재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실험적으로 계절학교를 한번 치른 정도이다 (그 대상도 "글쓰기 연구회" 회원가족으로 한정해서). 지금은 실험학교의 토대인 농사를 중심으로 한 자립적인 생활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윤구병선생님을 비롯해서 거기에 몸을 던진 사람들이 프로 농사꾼이 아닌지라 약초에 관한 책과 작물재배법에 관한 책들이 눈에 띄었다. 경제적으로 자립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농사 외에 고부가가치 상품들, 예를 들어 약초술이나 효소개발 등을 하고 있었다.

경제적인 후원회는 자립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여 제의가 들어와도 거절하고 대신 외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농사일을 거들어 주는 정도이다. 나는 풍발과 고구마밭을 땀다. 뜨거운 8월 햇살이 두려워 밀짚모자는 물론이고 긴팔에 긴바지, 벌레 물림까봐 양말까지 완전무장을 하고 호미로 낮으로 밭을 땀다. 대학시절 농할때 했던 논에서 피땀은 것보다는 쉬웠다. 벼와 피는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콩이랑 잡초, 고구마와 잡초는 구별하기 쉬웠다. 처음에는 일 자체에 몰두해서 더운지도 몰랐다. 고구마순보다 잡초가 훨씬 무성해 고구마순이 보이지 않던 자리에서 잡초를 호미로 뽑아내 고구마순의 제대로 된 모습이 하나 드러났을 때 이마에 비오듯 땀이 쏟아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슨 산삼이라도 캐듯 몰두했던 것이다. 이제사 무척 덥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여기 저기 옷을 뚫고 양말을 뚫고 내몸을 유린하는 벌레들 때문에 슬슬 간지러워 굵어대느라 정신이 없었다. 사우나에 들어간 것처럼 땀을 흠뻑 흘리고 나니 한결 시원해졌다. 한자락 바람의 시원함이 땀에 사무쳤다. 참다운 쉼이란 일한 자의 땀이라는 평범한 진리가 온 몸에 와닿는 순간이었다.

처음에는 엉덩이를 땅에 붙이지 않고 쪼그리고 앉아 호미질을 하였으나 나중에는 엉덩이를 아예 땅에 붙이고 피질러 앉아 호미질을 하기 시작할 때쯤 이제 돌아가자고 한다. 무척 힘들었지만 뒤를 돌아보니 그 무성했던 잡초가 없어지고 고구마순들이 제대로

된 자태를 드러내고 일렬로 서 있는게 아닌가! 농부들이 “자식처럼 키운 농사”라고 말하는 것이 실감났다. 이제 더이상 황무지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고구마밭이 된 것이다. 밭일의 보람은 이런거라며 같이 온 아가씨가 일러주었다. 땅의 땀가는 정말 정직했다. 땅은 땀과 어우러져 이렇게 정직하게 생산물을 내는데 나는 무엇을 생산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관성화된 나의 서울생활을 뒤돌아보게 했다. 나는 거대 소비도시 서울에서 601호 아줌마로서 의식주를 포함한 도시문화를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다.

“나의 소비가 과연 생산적인 소비인가?”

이미지가 실상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광고의 홍수속에 살며 이미지에 쫓겨난 채 도시문화를 소비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게 했다.

“새로운 것이 더 좋다”는 자본의 속삭임에 체면걸려 486보다는 586컴퓨터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정보에 대한 검증도 해보지 않은 채 막연히 인터넷 정보는 내가 모르는 어떤 것을 줄 수 있는 요술상자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인터넷과 보다 쉽고 빠르게 접속될 수 있는 컴퓨터를 갖고 싶어 한다. 슈퍼나 지하 주차장에서도 통화가 잘 되는 900M 와이드폰 무선전화기 광고는 1년도 채 안된 우리집 무선 전화기를 고물로 느껴지게 만든다. 바로 몇일전만 해도 3만5천원의 가격표가 붙어있던 하람이 옷이 어느날 세일한다고 만6천원이라는 가격표로 둔갑한 것을 보고 그 가격표에 홀려 그 옷의 필요성은 제쳐놓고 ‘나는 3만5천원짜리 물건을 만6천원에 샀다’라는 기쁨에 도취되어 산 적이 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옷의 가치가 3만5천원이라고 믿게 만드는 소비문화의 힘에 스스로 놀라와 진다.

변산에 가서 인상적이었던 것 한 가지는 거기 생활에는 버리는게 없다는 것이다(물론 새로운 것이 더 좋다는 기만에 찬 이미지를 뱉어내는 TV도 없었다). 잡초도 버리지 않고 퇴비로 만들거나 효소로 이용한다. 음식찌꺼기는 개와 닭이 먹는다. 읍내에서 버린 폐물도 가지고 와서 여러가지 활용해 부뚜막도 만들고 깨진 항아리는 개집으로 이용한다. 이제는 쓸모없다고 폐기처분된 커다란 옛날 항아리를 백여개 모아둔 거대한 장독대도 있었다. 지금은 그 항아리들이 비어있지만 앞으로는 거기 사람들의 피와 땀과 희망이 담겨지게 될 것이다.

현 것을 버리고 새로운 쉼단의 것을 소비하게 하는 “만드는 문화”에서 서로 생명을 먹여 살려주는 순환적인 “기르는 문화”로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소비가 이렇다면 내가 생산해낸다고 할 수 있는 시간강사로서 몇 톨의 화폐가치는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아직 지식을 생산해내는 수준은 못되고 기존 지식을 전달해주는 수준에 있다. 그런데 내가 전달하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정말 쓸모있고 생산적인가? 피로운 질문을 던져본다. 교수들이 자신이 외국유학에서 배웠던 지식을 전수 받아 나는 그것을 녹화 재방송하고 있지 않은가? 외국에서는 한물 가고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은 얼떨끼 지식과 정보가 아닌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지식과 정보를 우리나라

현실에 기초해서 생방송해야 할텐데 아직 갈 길이 멀다.

변산반도 실험학교를 다녀와서 또 하나 느낀 것은 도시생활에 절은 나의 한계이다. 요즈음 특히 환경운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생태계의 조화가 이제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코 앞에 닥친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머리 수준까지 밖에 안 왔다는 것을 실감한다. 아직 가슴까지 와 닿지 않았고, 위까지 내려와 소화되어 체화되기에는 도시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 것이다. 머리로는 인간은 생태계의 일부로서 동물과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변산 농가에서 풀어 놓아 기르는 장닭이 무서웠다. 정말 무서웠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나에게 주며 닭에게 주고 오라고 해서 닭 있는 데로 갔는데 무서워서 음식만 던져 놓고 부리나케 나왔다. 그 닭도 내가 자기를 무서워하고 있는 걸 눈치 챘는지 마당에서 감자를 씻고 있는데 자꾸 내 주변에만 와서 얼짱거린다. 나는 무서워서 자꾸 피해 다녔다.

꼭예운전이 판치는 ‘죽기살기식 운전문화’ 속에서 ‘초보운전’ 표딱지 하나 믿고 그 무수한 눈총과 크랙션 소리를 감수할 수 있는 간 큰 여자인 내가 시골닭을 무서워 한다니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아마 어렸을 적부터 도시에서 자라 그런 집짐승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은 자연속에서의 다양한 체험과 행복한 추억으로 아동기가 채워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래서 나는 하람이와 같이 놀 기회가 생기면 가능하면 자연을 느끼고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만들기를 마련해주고 싶은데 하람이와 하람이 아빠는 놀이기구 타는 것을 훨씬 행복한 추억만들기로 생각하고 있으니 오히려 통제라.

내가 실험학교의 냄새라도 맡고 싶어했는데 학교의 냄새를 맡을 수 없어 다소 실망했던 것은 내가 아직도 교육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 무엇으로 생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생활방식이 바뀌어 가는 과정이 그 학교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교육이 바뀌어야 우리의 생활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방식이 바뀌어야 진정한 교육의 변화가 온다는 것을 몸으로 겪었다. 올바른 생활에서 묻어나오는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이지 않겠는가! 그것이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심정적으로 닭을 가까이 할 수 있을 때 더 가까이 올 것이다.

작은 기획

열쇠 따르릉 전화

대표자 / 강명순(총무)

소재지 / 우)120-01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5번지 기사연빌딩3층 3호

문의 / 전화 02)365-1123

열쇠 따르릉 친구는 맞벌이 자녀와, 빈민지역에서 방과후에 혼자 지내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1995년 5월 15일 개설된 부스리기선교회의 전화상담 프로그램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과 결손가정자녀의 문제가 심각하고 비행청소년 연령이 10대로 내려가면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 속에서 사랑과 대화와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상담전화입니다. 그동안 홍보가 부진하여 많은 상담은 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1기 2기 상담원 교육을 끝마친 상담원들의 헌신적인 상담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열쇠 따르릉 전화친구는 혼자 있는 아이들을 위해 부모를 대신하여 양육하는 대리양육자가 아니라 일하는 부모를 도와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도움과 정신적 위로를 주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열쇠 따르릉 전화친구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화친구는 어린이가 아플 때, 조그만 사고가 발생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상태, 학교에서 배운 것이나 간단한 숙제와 준비물 준비에 관한 올바른 정보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빈집을 노리는 이들로 부터 보호와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일 성폭행등의 사고의 위험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어린이와 청소년이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과 두려운 마음을 말하고 싶을 때 친

구가 되어 그 고민을 들어줍니다.

네째, 상담원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드립니다.

상담원들의 따르릉 전화 친구를 부모님이 신청하시면 상담원이 직접 집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전화를 걸어 아동과 청소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지난 1개월 동안 전화 친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민 내용을 들었습니다.

성(性)문제, 학교 교우관계, 부모이혼으로 인한 아동의 갈등, 형제 갈등, 성격, 약물,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전화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맞벌이하는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자녀에 대한 상담(학교교우, 성적, 성격 등)이 있었습니다.

상담방법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언제든지 전화상담 가능

전화친구 상담원이 되시려면...

1. 전화친구 상담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상담교육 기관에 제출합니다.
2. 상담신청서에는 신원보증인 2명의 연대보증을 세웁니다(어린이와 청소년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3. 상담신청서를 제출할 때 주민등록등본1통과 사진 2매를 함께 동봉합니다.
4. 반드시 상담교육을 받은 후 전화친구 활동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스리기선교회로 문의하여 주십시오(02-365-1265, 392-4630).



육아일기

배꼽이 떨어졌어요

나은미 / 전 오손도손에기방 교사

<생후 3일째>

드디어 엄마랑 아기랑 나란히 누워있게 되었어요. 퇴원해서 퇴원집에 왔거든요. 처음 아기를 안아 본 엄마는 어떻게 안아주어야 할지 몰라 쩌렁쩌렁했어요. 그런데 뱃 속에 있을 때는 무거웠던 아기가 너무 가볍네요.

본말실에 누워 아기를 처음 보았을 때는 모든 것이 정상인지 아닌지만 궁금했는데, 아기가 건강하다니까 예뻐요 하면 복심이 생기더라고요. 면회시간에 아기를 본 아빠는 머리통이 작고 못생겼다고 걱정을 했어요. 돈 많이 벌어야겠다면서요. 그래서 아기를 가까이서 보게 되자 이곳저곳 살살이 살펴보았어요. 눈, 코, 입을 따져 살펴보니 다행히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얼굴에 살이 오르고 이목구비가 특을 잠으면 예뻐진다는 할머니 말씀을 믿고 일단 잘 먹어서 건강하게 키워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생후 8일째>

엄마는 신생아가 가만히 누워서 잠만 자는 종 약이었어요. 그런데 팔, 다리를 바둥거리고, 엎어 놓으면 고개를 돌려고도 해요. 노래를 불러주면 뱃 안에서 들던 것이 생각나는지, 소리를 내면서 웃기도 해요. 알아달라고 보채서 안아주면 주위를 동체동체 살펴요.

아직은 시각, 청각의 발달이 미숙하고 감정 표현을 제대로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아기의 행동 하나하나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답니다.

앗! 배꼽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볼록 튀어 나왔어요. 차츰 예쁘게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걱정이네요.

<생후 20일째>

아기는 하루가 다르게 달라져요.

아기를 쳐다보고 있다가 얼굴이나 손을 움직이면 눈동자를 조금씩 움직여요. 엄마의 기침소리에 팔팔 놀아기도 해요. 이제 눈과 귀가 트이나 봐요. 앉아서 앉고 있는지 서서 앉아 있는지 척척 알아요.

처음에는 머리 크기가 엄마 정도보다 작았는데 이제는 아기의 머리 크기가 더 크답니다.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아기가 참 예쁘네요.

<생후 30일째>

우리 아기의 이름이 생겼어요. 유빈이에요. 빛난다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별명도 빛나리예요. 정확관을 거쳐 결정된 이름인데 세상에 널리 알려질 이름이기에 신사숙고 했습니다.

유빈이는 젖을 먹이거나 안아주면 엄마 얼굴을 익히려는 듯 뺨히 쳐다본답니다. 너무 쳐다봐서 엄마는 부끄럽기까지 해요.

같이 놀아주면 얼굴이 다 웃고, 배가 고프면 숨이 넘어갈 듯 소리를 뽀뽀 지으며 울고, 젖을 뺏다가 잘 안나오면 연소 울음소리를 내며 징징거려요. 얼굴 모습도 많이 변했어요. 희미했던 눈썹이 윤곽을 드러냈어요. 보이지 않던 손가락이 술도 많아지고 길어졌어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엄마랑 눈을 맞추는 유빈이를 쳐다보고만 있어도 즐겁답니다.

<생후 40일째>

유빈이가 목을 잘 가누게 되었어요. 안아주면 머리를 똑바로 들고 여기저기 둘러본답니다. 목을 받쳐주면 자꾸 손을 주면서 연습하더니 보람이 있네요.

엄마가 이야기하면 입을 유심히 쳐다보다가 입을 모으려고 소리를 내요. 바로 종알이를 하나네요.

밖에 나가면 눈을 못떴는데 이제 실눈을 뜨고 즐겨워해요. 웅다갸도 밖에 나가면 꼭 그쳐요. 코에 바람이 들어가서 그런대요.

엄마는 수양이 될 뻔 해서 그런지 새벽에 일어나서 보채면 짜증이 나서 태 그러나고 혼을 냅니다. 그러면 더 크게 울어요. 잘 놓 때만 예뻐한다고 섭섭해서 그런가봐요.

<생후 50일째>

유빈이가 엄마를 알아봐요. 이유없이 울 때, 다른 식구들이 앉아서 달래면 그치지 않다가도 엄마가 안아주면 꼭 그쳐요. 첫년새로 아는 것인지 낯을 익힌 것인지는 몰라도 엄마를 알아본다는 것이 즐겁기만 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생이 나네요. 금세 발목을 몰라보고 발톱만 알아보라며 투덜거리네요.

<생후 60일째>

예방접종을 하러 병원에 갔다가 걱정거리와 안고 왔어요. 체중이 4.7kg인데 한 달 사이에 0.7kg 밖에 늘지 않았어요. 유빈이는 젖이나 우유를 먹고 나면 잘 못해요. 어떤 때는 먹은 것을 다 토하는 것처럼 많이 토해요. 그래서 체중이 조금밖에 늘지 않았나봐요. 위가 어른과 달리 물병모양이고 아직 덜 발달해서 그런대요. 걱정 안할 수가 없네요. 다이어트는 엄마가 해야 하는데 유빈이가 대신 하나네요.

저녁 때는 아빠랑 노는데 장난치는 것을 알아서 짜르 웃으면서 좋아해요. 놀아주면 반응을 하니까 아빠는 유빈이가 더 예쁜가봐요. 부녀가 마주보고 노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엄마는 너무 흐뭇하답니다.

세상읽기

교사로서 나는 부끄럽지 않은가

편집부

최근 침대에 엎드려 자거나 시설내 기물로 인한 안전사고로 아이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아이 보는 일이 잘해야 욕을 면하는 것일 뿐이라고들 하지만, 이리도 아이를 돌본다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적은 없었다. 누가 자신의 귀하디 귀한 자식을 맡기려 들겠는가 싶었다.

사실 보육시설 또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일어난 모든 안전사고를 교사에게 책임전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들 사고들의 대부분이 시설내의 환경(계단이나 난간, 창문 등)이나 놀이기구와 같은 시설물들이 아동의 신체조건 등에 맞게끔 설비되어 있지 못함에서 일어났다는 통계(실외사고는 24.7%인데 비해 실내사고가 63.1%로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유아정보 '96년 6월호 참조)만 보아도 그렇다. 이런 안전사고로 교사는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면서도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자책감으로 자신의 활동에 의기소침해지고 무력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현실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사건은 어떤가.

지난 7월 지방의 한 놀이방에서 여자 원장이 3살짜리 원아를 샤워기로 구타하여 입원 후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다. 놀랍게도 이 원장은 임신중이어서 출산관계로 두달가량 지난 9월초에 구속되었다고 한다. 또한 얼마전 안산에서는 유치원 원장이 원아들을 대상으로 차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성추행을 저질러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바 있다. 결국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이가 오히려 아이들을 해(害)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주변의 집에 질린 부모들에게 우리만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한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인가.

사실 이런 이야기는 밖으로 내놓고 다루기에는 무척이나 망설여지고 조심스러워지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부끄럽고 어두운 치부를 드러내놓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되물음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너무도 초라한 공간에서 변변한 놀이감도 없이 아이들을 돌보던 때가 있었다. 차마

월급이라 하기 우스운 돈을 받으며 교사와 많은 아이들이 뒤엉켜 12시간 이상씩을 보내던 그때도 안전사고의 위험은 있었을 것이다. 허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었다.

물론 지난 시절에 비해 지금은 엄청난 수로 보육시설이 증가하였다. 그로 인해 전체에 비해 극소수이겠으나 우리 귀에 훨씬 많은 이야기들이 접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보육사업이 미래의 주인공들을 키워내는 무척이나 힘들고 따라서 소신을 갖고 정성들여 해야만 하는 일임에도 단지 일정정도의 교육과정과 약간의 자본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 부업으로 여겨지고 있는 현사회에서, 아이들은 공장에서 만드는 생산품처럼 하나의 대상이고 시쳇말로 '돈'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 가슴에 손을 얹고 진정으로 생각해보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으며 누구에게든 몇몇하게 이 일을 대하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 우리 스스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자신에게 솔직하고 진솔하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교사가 아이들을 진정으로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제반 조건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이들을 찬찬히 관찰하고 함께 즐길 수 있을 교사와 아동간의 비율, 좋은 교사가 오래 머물며 자신의 노하우를 쌓아갈 수 있는 정도의 보수 책정과 전문인력으로서의 사회적 인식·평가,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과 주변환경, 놀이시설과 놀이감들, 그리고 아이들을 참으로 아끼고 위하는 사회 전반적인 노력과 인식들...

그러나 이런 주어지는 조건들에 앞서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책임감과 사명감을 재확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물건이 아닌 인간을 다루고 보호하고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며 외부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무척이나 큰 감동과 보람을 안겨주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그에 비례하여 어느 일보다 훨씬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중심을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변화·발전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는 것이다.

'90년 혜영이·용철이 질식사, '91년 인천 세쌍둥이 질식사 등으로 우리 사회에 보육의 필요성은 절실하게 전달되어왔다. 그리고 보육시설이 계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마당에도 간간히 우리는 잠긴 빈 집에서 변사를 당한 아이들의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된다.

'90년 혜영이·용철이 남매를 한꺼번에 잃은 어머니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가 위령제를 벌이며 위로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쳐 울었다.

"왜 이제 나타났소. 왜 이제사 왔소."

그이의 한탄섞인 항의를 받으며 보다 많은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안타까워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태가 뒤바뀌었다. 아이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어머니의 입에서 우리는 이런 말을 듣게 된 것이다.

"믿고 우리 애를 맡겼는데, 애 좀 봐달랬더니 누가 죽이랬소."

이 물음에 우리 중 누가 대답할 수 있을까.

막아△별극

진달래동산에서 있었던 일

이야기 하나 - 해라는 너무 현실적이지!

선생님 : 애들아, 백두산은 얼마나 아릅답을까. 기차타고 놀러가고 싶다.

아이들 : 놀러가요.

선생님 : 지금은 못가.

해 라 : (너무나 큰 목소리로 당당하게) 그대 지금은 못가.

선생님 : 왜? 해라아.

해 라 : (도우너 같은 목소리와 표정으로) 지금은 놀이터 가야 해요.

그대 맞는 말이다. 이야기 나누기 끝나면 놀이터 가기로 했거든. 해라는 너무 현실적이지.

이야기 둘 - 엄마 갔어?

아이들이 적응할 때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하는 건 어느 어린이집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 일 것이다. 국일(본 연합회 부회장님 아들, 3세)이도 예외가 아닌데, 엄마가 어린이집에서 조금이라도 있다가 나가면 더욱 떨어지기 힘들다. 그러던 어느날 큰 방에서 잘 놀던 국 일이가 아무 이유없이 울기 시작했다.

국 일 : 엄마~ 아~(눈을 꼭 감고, 고개를 젓히고, 입을 크게 벌리고, 눈물과 콧물 을 떨어뜨리며 두 팔을 구부리고 서서)

엄 마 : (무시하고 얼른 인사하고 나선다) 국일아, 엄마 힘의 다녀올게. 안녕.

국 일 : 엄마~ 아~(그 자리에서 운다)

선생님 : 국일아, 왜 울어? 엄마는 갔는데...

국 일 : (언제 울었냐는 듯 툭 그치더니) 엄마 갔어?

참고(참고, 3세, 국일의 절친한 친구)아 놀-자.

이야기 셋 - 설렁한 인형들의 인형극

햇빛 좋은 아침 창가에서 아이들끼리 노는 걸 구경하고 있었다.

사 인 : (손인형들을 잔뜩 들고 와서) 선생님, 우리가 인형극 할게요.

선생님 : 그래, 재미있게 해주세요.

스폰지블럭 막을 황급히 설치하고 정원이, 재준이, 성정이까지 합세해서는 인형극을 시작 한다.

사 인 : (토끼를 손에 끼우고 인형을 까닥이며) 안녕하세요. 저는 토끼예요.

선생님들 : (명랑한 목소리로 잔뜩 기대를 하며) 안녕하세요.

사 인 : (너무나 단호하게) 끝이에요.

선생님들 : 썩정!

정 원 : (개구리를 왼손에, 코끼리를 오른손에 끼우고는 개구리를 까닥이며 너무나 썩썩하게) 안녕하세요. 나는 코끼리예요.

사 인 : 아니아, 개는 개구리아.

정 원 : (당황해서 얼굴이 벌개가지고는 개구리를 까닥이며 다시 한다) 안녕하세요. 나는 코끼리예요.

사 인 : 아니라니까, 개는 개구리아.

선생님 : 천천히 다시 해봐라.

정 원 : 안녕하세요. 나는 개구리예요.

선생님들 : 어머, 안녕하세요.

정 원 : 끝이에요.

모두들 황급히 막을 거두고 물러간다.

아이고 썰렁해라. 다시는 저 인형극 구경가나 봐라!

이야기 넷 - 장마=경마장

지리한 장마가 계속되던 여름의 어느날.

선생님 : 애들아, 요즘처럼 비가 매일매일 오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니?

병 기(진달래를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형아) : 장마요~.

그때 무언가 자기도 병기 오빠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알리고 싶어하던 해라가 제재의 웃 음을 지어 보이더니

해 라(5세) : 아~ 경마장이요? 나 지난번에 엄마랑 가서 막 타봤어요.

우리들의 목소리

『짱아 짱아 베짱아』를 보던 날

임사용 / 꾸러기 어린이집

오늘은 『짱아 짱아 베짱아』를 보러 가는 날이다.

9시까지 도착하는 아이들도 모두 밝은 얼굴로 연극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하다. 이름표를 달고 머리 두건을 쓰고 신을 신고 짝손을 하고 두줄 행렬, 보는 사람들에게 “에쁘네” “귀여워라, 어쩐!” 찬사를 받는다. 한줄 기차를 하고 전철 계단을 내려서 전철을 기다린다. 전철이 오면 두줄로 들어가서 사람들 사이에 서 있다. 역시 칭찬과 따뜻한 자리 양보와 찬사를 받으며 해화역에 내렸다.

아이들은 연극을 보기 전에 갔다오는 화장실도 잘 다녀오고 선생님 말씀을 평소보다 더 잘 듣는다. 연극을 보러 자리에 앉았다. 어둠을 무서워하는 광식이를 안았다. 우리의 악기소리와 함께 배우들이 등장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의 말과 질문에 아이들의 반응은 적극적이다. 손뼉도 치고 평소 잘 울던 현주도 안울고 재밌게 본다. “선생님 재미있어요.”라는 말도 하면서.

베짱이가 노래를 잘 하니까 “베짱아”하고 친한 친구를 부르는 것처럼 부른다. 별

이 등장하는데 벌이 날다 뽕 부딪히는 소리가 나자 기대는 “왜 그러니?” 의아해하니, 배우가 “옹 가다가 넘어졌어.” 대답한다.

아이들은 재미있으면 까르르 까르르 웃고 손뼉도 친다. 새소리가 나자 “어? 새소리네.” 광식이는 말한다.

연극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꿀을 넣는 장면이 나오는데 꿀을 함께 넣자고 하자 우리아이들은 모두 나가서 농구대에 꿀을 던진다.

『두레』라는 연극팀은 음향을 녹음하지 않고 현장에서 깡통과 비닐, 풀피리, 장고, 북, 쟁과리 등 우리 악기는 물론 폐품활용 악기를 사용하여서 보기 좋았을 뿐 아니라 배우들도 열심이였다.

아이들은 “어여 디여 어기영차”라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공연장을 나와 맛있는 점심을 먹고 미술전시회도 관람하였다. 서예에서 한자 천(天)자를 찾아내는 현지, 사진을 보고 본 경험이 있는 장면을 그대로 얘기하는 창용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다.

오늘 연극나들이는 참 행복한 나들이였다.

새 출발 그리고 한달

태재원 / 하나·둘·셋 어린이집

1996년 1월 27일!

나는 평범한 사람들이 한 평생을 살아도 결코 쉽게 겪기 어려운 ‘불난리’를 겪었다. 그것도 나 혼자만의 일시적인 난리가 아니라, 우리 놀이방 아이들의 생명과 모든 교사들, 자활들, 후원자들의 유·무형의 재산 모두를 위협했던 ‘대란’이었다.

그동안 나는 많은 시간들을 도둑맞은 것 같은 억울함에 힘들어 했다. ‘불이 났다’는 것은 원래의 문법과는 달리, 나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일에 대한 완결행이 아닌 현재진행형, 아니 미래진행형일지도 모른다.

고스란히 태워버린 3천여만원의 추억 어린 물건들, 사용도 못하면서 이자는 꼬박꼬박 내야하는 보증금 2,300만원... 아이들도 즐겼다. 임시로 있던 나의 자취방(화재 이후부터 5월말까지)은 좁고, 말 그대로 ‘임시’라서 새로운 아이들을 받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탄탄하던 후원관리체계(전화독촉?)가 금이가면서 정기후원자는 거의 다섯손가락으로 꼽을 수준이 되었고... 언제 우리가 넉넉한 살림에 통장에 돈 쌓이기 바라며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그때처럼 불안하고 앞날이 캄캄한 상황에 처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만 때려치우자, 결심이 섰다가도 내가 투정할 수 없는 눈과 귀가 있음을 문득 떠올린다. 가장 먼저 이런 어수선하고 보잘 것 없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고, 또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믿고 아이들을 맡겨 주시는 너무나도 고마운 우리 부모님들이 있다. 가슴 뜨거워진다. 눈물도 절끔절끔... 그리고 텅 비어있는 나의 자취방에 하나하나 물건들을 채워주고 후원금을 보내주셨던 얼굴없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 또한 이 좁은 공간으로 무언가 자기 일을 찾겠다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한마음으로 바글바글 올라오는 자원활동가들,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그 분들은 우리를 잊지도 않았고, 마냥 불쌍한 마음으로 위로하지만도 않았다. 같은 동네에 사셨던 어느 고마우신 신부님(천주교 도시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님)의 노력으로 우리의 이야기가 ‘서울주보’에 실렸고, 얼굴 없는 많은 분들이 1,000만원이 넘는 후원금과 물품을 보내주셨다. 또한 성산복지관에서 안산의 진달래동산으로 기증하기로 한 놀이감을 안산동료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의 애정과 관심, 물질적인 도움에 지탱하여 우리는 ‘하나·둘·셋 어린이집’이란 이름으로 새 출발 할 수 있었다. 미아3동(수유사거리)의 한 거대한(?) 주택 1층, 지금 나는 그곳 교사방에 엎드려 글을 쓰고 있다.

1996년 7월 20일!

‘하나·둘·셋’의 새 출발을 알리는 ‘이전식’을 했던 날이다.

우리 다마스와 작은 트럭을 빌어 시작된 우리의 이전 과정은 참으로 길고도 힘들었다. 우선 펼쳐 놓을 공간이 없어 그냥 쌓아 두었던 많은 후원물품들을 거의 10차례에 걸쳐 옮기고, 닦고, 배치하고, 남은 집 역시 닦고, 치장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 과정속에서 힘들어 하며 교사 한분이 일을 그만두기도 하였고, 남은 교사들은 많은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막막함, 허탈함에 힘들어 했다.

하긴, 그보다 먼저 집을 구입하기까지의 과정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힘들었다. 국민연금 용자가 담보가액의 부족으로 예상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이어서 어린이집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중도금과 잔금을 내던 날은 거의 전쟁을 치르고 녹초가 되곤 했다. 교사들 모두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서로 눈치보며 미안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조금이라고 줄여보려고 설문조사, 음식점 서빙, 워드 입력, 보험 판매까지 모든 교사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그래, 오늘 고백하지만 모두들 도망가고 싶어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나는 대표교사로서 그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 도망가고 싶었고, 참 많지도 몰랐다. 주변 사람들에게 대한 무관심이나 무시는 아니었는데, 혼자라는 생각도 정말 나를 힘들게 했다. 나의 툭툭 부은 얼굴과 힘없음이 나와 우리 '하나들셋'을 아끼는 사람들을 얼마나 가슴 아프고 지치게 했는지도 모르고 말이다. 화제로 잃은 것이 눈에 보이는 물건만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 가슴 속의 희망, 의지까지 잃어가고 있었던 사실조차 눈치를 채고 계셨는지도 모른다. 특

히나 후원금이 1/10수준으로 까지 줄어 더욱 더 안타까워 했던 것을 보면...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맞았고, 이제는 극복하려고 함께 노력하기에 우리 교사들은 더욱 탄탄한 유대관계를 자랑하며 늘 웃으며 생활하려 한다. 서로 교사회의 때 마주보는 것과, 아이들과 노는 모습을 지켜볼 때 가슴 평화롭게 '사랑함'을 느낀다. 화재 이후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나 역시 마찬가지이지는 않지만, 인건비(거주 차비정도인 30만원) 한번 가져가지 못하고, 오히려 바깥에서 아르바이트해서 번 작은 돈으로 차비만 간신히 메우는 우리의 빚을 메꾸는데 아무런 불평없이 함께 하는 우리 교사들과 그들의 가정에 한없이 감사할 따름이다.

'새옹지마'를 생각한다.

이제 적지만 어린이집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9명의 아이들과 한없이 안스러워 보이는 두 동생 교사들과 함께 힘차게 새출발하려 한다. 이미 땅은 다져졌고, 우리 3명의 교사들이 씨뿌리고, 물주며, 사랑으로 싹을 피우려 한다. 그리고 언젠가 머지않아 우리 사랑이 아이들은 물론, 부모님들, 후원자들, 동네 주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늘 웃음 넘치는, 언제나 '하나들셋' 힘차게 외치는 어린이집이 되리라 생각한다.

내일 또 제일 먼저 현관문을 두드려 우리 아이의 얼굴이 떠오른다.

보육계 동향

[보육시설 확충과 질 개선을 위한 현실과 방향] 공동행사 개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회장 남미영)와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소장 서정은)는 [보육시설 확충과 질 개선을 위한 현실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교육사업과 관련 행사를 11월 한달동안 공동으로 벌인다.

공동 월간사업은 1) 교사, 원장, 예비원장 대상의 교육사업 2) 보육관계자들을 대상의 토론회사업으로 진행하며 이 시기 보육사업의 현실을 조망하고 보육운동의 이슈와 제안점을 밝히고자 함이 목적이다.

각 행사의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02-275-8505~6) 또는 한국보육정보연구소(02-268-3954, 271-1547~8)로 하면 된다.

제 목	일 시	장 소	대 상	주요내용	참가비
보육교사를 위한 성교육	11/ 9(토)	미정	보육교사, 원장 등	보육시설에서의 성교육	1만원 (회원 7천원)
제2회 개원요령 설명회	민간·가정 11/15(금)	오후 1:30-5:00 대학문화원 강당	민간·가정보육시설 운영 예정자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 제공	3만원 (기본교재 1부 +오락집 포함)
	직장 11/22(금)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관련자		
	성공적 운영사례 11/29(금)		영아·24시간·방과후· 장애아보육 관계자	운영에 대한 실제 사례, 현장 관계자 발표	1만5천원 (사례집 포함)
'보육시설의 확충과 질 개선을 위한 현실과 방 향'- 방과후 보육제도에 관한 토론회	12/ 8(금)	오후 1:30-5:00 대학문화원 강당	보육사업 관계자	방과후보육의 정책 과 현실 진단 및 대 안모색	1만원 (자료집 포함)

4기간 : 11월 1일부터, 선착순 150명

4신청방법 : 1. 전화신청(이름, 연락처) 2. 참가비 온라인 입금 3. 접수 확인 4. 입금증 당일 지참

4온라인구좌 : 예금주 서정은

우체국 010231-0047916-12

한 일 170-160275-12-001

농 협 360-02-026990

서 울 29504-2040202

조 흥 371-06-158968

상 업 134-08-027207

4장소안내 : 여성평화의 집 / 지하철 3호선 동국대입구역, 24호선 동대문운동장역 하차, 정충동사무소 앞 대학문화원 강당 / 지하철 3호선 동국대입구역 하차, 엠베서더호텔 옆에 위치

'96 제1회 교사재교육 '사회복지로서의 보육사업' 강좌

보육사업이 사회복지사업으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범사회적인 추세라 하지만 많은 문제점과 과제가 속출하고 있다.

보육사업은 영리추구도 부업꺼리도 아닌 복지사업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보육서비스가 동등히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부재와 정책의 혼돈(여성복지나 아동복지나, 국가가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지어야 복지라고 할 수 있나, 언제까지 민간에게만 의존할 것인가 등등...)으로 큰 맥을 못잡고 혼란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와 아동복지, 그리고 보육사업」의 역사와 흐름 알기, 통일된 입장정리가 요구되어 교사재교육의 장으로 기회를 마련하였다.

현장교사들과 보육관련자들이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일 시 : 1996.10.19(토요일) 오후 3시

장 소 : 여성평화회의집 지하강당

(3호선 동대입구역, 2·4호선 동대문운동장역 하차)

대 상 : 지탁연 회원, 개인회원, 자료회원(비회원은 선착순).

강 사 : 김종해교수(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참가비 : 7,000원(비회원 10,000원)

접 수 : 전화신청하고 회비 입금후 접수 확인(입금증 지참요망)

공동육아연구원 원장교육

교육기간 : 10월 말부터 3개월 과정(매주 토요일)

수 강 료 : 50만원

모집인원 : 약 10명

신청자격 : 공동육아원에 서류를 내고 면접을 통과한 자에 한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후 공동육아어린이집 원장으로 취업할 수 있다.

문 의 처 : 02)3471-0606

<어린이도서연구회 교육, 행사>

어린이도서연구회 신입회원 교육강좌

교육기간 : 10월16일~97년 4월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참가인원 : 선착순 30명

회 비 : 20만원

제2회 좋은 책 보내기 행사

내 용 : 낙도벽지 학교 또는 사회복지단체, 해외 어린이에게 좋은 책 보내기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좋은 책 보내기

기 간 : 1996년 10월 1일~11월 30일까지

장 소 : 어린이도서연구회, 전국 중·대형 서점, 어린이 전문서점

참여방법 : 책을 보내고자 하는 개인, 학교, 단체의 이름을 밝히고, 구좌당 5,000원씩 연구회로 입금하면 됨.

계좌번호 : 국민은행 817-21-0276-751 오춘식

영상교육 강좌

내 용 : 영상교육 프로그램, 비디오·사진·슬라이드 활용 프로그램

목 표 : 영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영상교육 실습

대 상 : 회원, 비회원(선착순 15명)

회 비 : 40,000원(슬라이드 필름, 마운트 비용 별도)

기 간 : 10월 19일부터 6주동안 매주 토요일 10:30~12:30

문의처 : 02)3672-4447

한국영유아보육전

내 용 : 교구, 교재전시

도서출판, 가구전시

시설설비시 필요한 물품등

기 간 : 10월 30일~11월 3일

주 최 : 한국영유아보육시설연합회

장 소 : KOEX

문 의 : 02)706-0966

재미있는 한국사 기행

참여연대의 시민교육기관인 참여사회 아카데미에서는 한국사 기행을 시작한다.

정치학박사인 손희재선생님이 강사로 동행할 예정이다.

- 전북익산 / 고도에 서린 백제의 한과 영광

일 시 : 10월19일 토요일 오전 7시 출발

- 경북경주 / 신라 천년의 떠운 숨결

일 시 :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출발

문 의 : 02)796-8364

다운 문화강좌 안내

부모를 위한 미술 교양강좌

자녀에게는 부모님이 평생 가장 좋은 선생님이시다. 병암하고 있는 미술과의 활동에 대한 자녀의 올바른 지도를 위한 부모의 역량과 태도를 도모하고자 한다.

내 용 : - 교양을 위한 미술의 이해 강좌

- 일반인을 위한 미술 전반에 걸친 이해하기 강좌

접수마감 : 매월 25일까지

참 가 비 : 다운그림방 회원 1만원, 비회원 2만원

그림을 빨리 드립니다(회원 모집중).

가정·사무실·병원 등 어느 곳이나 상담환영.

문 의 : 다운그림방 02)876-0353

장애아동 무료상담

장애아동이 보편적으로 보이는 문제들인 언어·인지·사회성·통합교육·학교학습·가정문제와 이에 대한 교육적 처치까지 상담하여 드립니다.

상담아동 : 정신지체, 자폐아, 학습장애아(연령제한없음)

상담일시 : 매주 토요일(10~13시)

문 의 : 대승아동발달클리닉 02)874-1205

'96 가을 영유아 보육 국제학술대회 「어린이와 놀이」

삼성복지재단 어린이개발센터는 영유아의 발달과 보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 이 분야의 권위자인 미국의 파인교수와 프랑스의 폰테인느교수를 초청, 제4회 국제학술세미나 '어린이와 놀이'를 개최한다.

주 최 : 삼성복지재단 어린이개발센터

일 시 : 1996년 10월 24일(목)~25일(금)

장 소 :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대극장(2층)

• 국제학술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등록을 받습니다.

• 참가비는 참가자 설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아래구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대회 당일, 입금증 지참 요망)

참 가 비 : 30,000원(점심, 교재비 포함)

예금구좌 : 103-04-100853(상업은행 남대문지점)

예 금 주 : 삼성복지재단

'96년도 가을에 권하는 책

16년 동안 어린이들에게 우리 정서와 삶이 담긴 책을 권하는 운동을 꾸준히 펼쳐왔던 어린이도서연구회가 '96년도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유아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학년별로 11권씩 총 55권의 좋은 책을 선정하였다. 아래에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에게 추천하는 책 목록을 실는다.

대 상	분 야	제 목	글쓴이/그린이/역은이	출판사
유 아	우리나라 창작그림책	보리 아기 그림책 3, 4셋트 (만2세부터)	이태수 외 그림	보리
		난 북치는 게 좋아(만3세부터)	한유민 글, 그림	비룡소
		안녕, 나는 너의 장난꾸러기야 (안녕시리즈)(만3세부터)	이형진 글, 그림	한샘출판
		추석 이야기(만5세부터)	이억배 글, 그림	길벗 어린이
	다른 나라 창작그림책	검피 아저씨의 뱃놀이 (만3세부터)	존 버닝햄 글, 그림	시공사
		구리와 구라의 뿔 만들기 (만3세부터)	나카가와 리에코 글/오무라 유리코 그림	한림
		마녀 워너(만4세부터)	코끼 풀 그림/벨러리 토마스 글	비룡소
		세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만5세부터)	제인 레이 글, 그림	마루북
	옛이야기 그림책	요술 부처(만5세부터)	심문선 글/이한중 그림	국민서관
		이야기 이야기(만5세부터)	게일 헤일리 글, 그림	보림
초 등 1-2학년	과학	나비는 어떻게 태어날까요? (만5세부터)	크리스 아베외스, 캐롤 웰머 글	다섯수레
	우리나라 창작동화	강아지 똥	권정생 글/정승각 그림	길벗 어린이
		다 타고난 재주가 있지요	이재복 엮음	산하
		달님과 다람쥐	김영수 지음	우리교육
	다른 나라 창작동화	알병꾸러기 고양이와 풍선장수 할머니	필리파 피어스 글	논장
		티코와 황금 날개	레오 리오니 글, 그림	문도
		도둑나라를 친 새신랑	김중철 지음	웅진출판
	옛이야기	메주 도사	서정오 글	보리
		장난꾸러기 코피트코	어린이도서학회 엮음	우리교육
	어린이 시집	나도 쓸모 있을걸	이오덕 엮음	창작과 비평사
		개구쟁이 삼복이	이문구 지음	창작과 비평사
		마이 사이언스 북(소리)	닐 아틀러 지음	한길사

△식과 △식

한국보육정보연구소, 개원시리즈1. [어린이집·놀이방 개원에서 운영까지] 펴내

본회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는 보육시설의 개원을 돕는 시리즈의 첫권으로 [어린이집·놀이방 개원에서 운영까지]를 펴냈다. 이 책은 일반 예비원장들이 보육사업에 대해 충분히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발간한 것으로 지탁연 소속 시설의 모범적인 운영사례와 제안을 충실하게 담았다. 이 책은 시내 교보문고에서 구입하거나 본회,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 직접 연락하여 구입할 수 있다.

한국보육정보연구소는 보육관련 서적을 출판하기 위해 '도서출판 한보연'으로 출판등록을 마쳤으며 회원시설의 도서출판 상담도 받을 예정이다.

「사회복지예산 GDP확보운동 공동대책위」 통합제2정사 앞에서 시위

9월 11일 12시 「사회복지예산 GDP확보운동 공동대책위」는 정부제2종합청사 후문에서 소속단체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좌시위를 하였다.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회장의 사회로, 조홍식교수의 개회사, 참가단체 3분 발언대로 임통일 교통장애인협회회장, 조영희 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위원, 한숙희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회장, 박주현

변호사의 사회복지 예산 증대에 대한 필요성 및 각 단체의 입장을 피력하였고 이어 성명서 낭독으로 시위를 마무리 하였다.

「사회복지예산 GDP확보운동 공동대책위」에서는 '복지예산 증액하여 삶의 질 보장약속 이행하라'는 슬로건 아래 향후 2000년까지 GDP 5% 수준의 복지예산증액을 위해 매년 40% 이상씩을 복지예산에 증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각 부분별 예산안을 준비하여 정부에 올릴 예정이다. 지탁연은 여연회원단체로 공동대책위에 참가하고 있다.



♣ 지역소식 ♣

편집자주 : 이번호 부터 지역관의 교류와 홍보차원으로 지역소식란을 신설하여 지역위원회의 활동상황을 실으려 합니다. 처음이고 해서 지역활동소개가 충분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부터는 지역 통신원을 지역마다 선정하여서 활동소개를 편집부로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로지역위원회

- 구로위원회는 올 하반기 활동방향을

내부역량 강화로 설정하고 그동안 두달에 한번 했던 월례회의를 월1회로 하여 결속력을 다짐과 동시에 내부 교육강화를 통해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감감함을 함께 풀어나가려고 한다.

- 영아교사모임 진행중 : 구로위원회의 영아전담시설인 새터·다우리어린이집 교사들은 월1회 교사교육모임을 하고 있다. 모임은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조로 달별 책을 선정하여 각자 학습한 후 토론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9월의 주제는 「레지오 에밀리아」를 읽고 토론할 예정이다.

- 성교육 진행 : 연합회주최로 11월에 있을 '성교육강좌' 준비를 위한, 현장에서의 실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부천지역위원회

- 내년 초의 통합을 계획하고 논의에 들어갔던 꽃망울 놀이방과 재롱동이 아가방이 예정보다 다소 빠르게 정리가 되어 '씩씩이 어린이집'이란 예전의 이름으로 서울대입구 전철역 근처에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지역위원회

인천위원회는 현재 소모임을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 풍물소모임(모임장 : 고정미) : 전래동요배우기-장단맞추기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풍물 중급과정에 들어갔다. 현재 국악강습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풍물 초급2기 회원을 모집중이다.

- 등산소모임(모임장 : 이연순) : 산행과 문화유산 답사를 다녀온 후 산행일지를 쓰는 것과 더불어 자연에서 채집한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 그림책소모임(모임장 : 박은아) : 그림책 선정 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평가를 작성한 후 서로 토론해서 재평가를 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 우리교육정리팀(모임장 : 문유미) : 우리 교육의 가치관을 발제, 토론,하고 이를 집중연구하고 있다.

- 노래·유희소모임(모임장 : 김영숙) : 손유희·동요·유희 배우기와 유희지도, 관련 교구·교재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지역위원회

- 소모임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책나라소모임(모임장 : 김지선) : 책비평 및 구연연습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통일이야기소모임(모임장 : 박화명) : 아직 활발하지는 않으나 높은 의지를 갖고 활동하고 있다.

- 광주지역에서는 보육교사 전문성 확보와 교사조직으로서의 선정의 장으로 활용하고 보육사업에 대한 홍보 및 선전을 해내기 위해 제1기 보육학교 개원을 계획하고 있다.

대상은 보육교사, 관심있는 학부모, 학생 등이며 올바른 보육원론, 놀이치료, 국악교육, 그림책 등의 내용으로 10/28~11/8, 주2회로 총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지역위원회

전북위원회는 '아이사랑교사회'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소모임(분과)이 비교적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 한소리분과(모임장 : 최수진) : 공동체놀이, 부모교육, 성교육 등의 고민을 집중적으로 한다. 학습을 주로 하며 올해 안으로 성교육자료집을 낼 예정.

- 놀이사랑분과(모임장 : 강선희) : 풍물강습은 각자가 해결하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창작에 주력하고 있다. 곧 손유희자료집이 나올 예정이다.

- 이야기나라분과(모임장 : 김서란) : 새로운 그림책을 비평하며 교수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부산지역위원회

지난 9월 1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직개편과 회칙개정을 하였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보육의 변화 속에 부탁위는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들을 해왔다. 그에 따라 올해 시설 중심에서 개별회원 중심으로의 변화를 모색하였으며 조직체계의 변화를 시도 하였으나 과도기적 상황하에 불안정한 체제로 상반기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조직개편을 하게 된 배경은, 첫째 신입회원들을 교양할 수 있는 단위의 부재, 둘째 평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꾀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의 부재, 셋째 교사들은 보육교사의 정체성 확립과 자질함양을 위한 다중다양한 실기교양들을 목말라함에도 부탁위로서는 그것을 채워줄 구조 및 책임주체가 준비되어 있지

지 못함도 한 문제로 지적되었던 까닭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교사모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는 보육교사조직으로 가기 위한 조직확대의 방안이자 지역위 교사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할 수 있다는 것과, 지역 민보련 활동을 강화하며, 지역적 특성에 기초한 동·구청과의 사업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개편에 따른 회칙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구 교사모임'항을 들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구 교사모임은 본회의 목적을 지역에서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활동단위이며 지역구 교사들로 구성한다. 기능으로는 * 보육교사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 * 본회의 전체활동에 참여하고 그 결정에 따른다. *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소모임을 들 수 있다.

♣ 사람들 ♣

* 결혼하십니다.

인천지역위 '새싹의 방' 김동준 선생님이 11월 3일(일), 영등포 신중양예식장에서 웨딩마치를 올립니다. 행복한 가을의 신부가 되시고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출산하셨습니다.

부산지역위의 전 지역장으로 수고하셨던 김경혜, 이원경 두 선생님이 딸과 아들

을 순산하셨습니다.

또한 대전지역위 전 지역장이셨던 권오원 선생님이 딸쌍둥이를 힘겹게 출산하셨고 샘골어린이집 전직교사인 이자우님도 딸을 출산하셨습니다.

새 식구를 얻으신 여러분 모두께 축하드립니다. 아이들 모두 건강히 무럭무럭 자라길 빌고 선생님들도 빨리 쾌유해서 밝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 귀국하셨습니다.

변미양 선생님과 주경남 선생님이 예정보다 빨리 귀국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의 근황과 일본연수기를 「우리네 아이들」 지면으로 뵙길 희망하며, 두분의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연합회 사무실이나 광주지역위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보내주셨습니다

- (주)도서출판 보리에서 「호랑이 잡는 기왓장」(글쓴이:서정오, 값 5,800원)과 「일하는 사람들의 글쓰기」(글쓴이:이오덕 외, 값 4,000원) 신간을 보내주셨습니다.

- 한울림 출판사에서 「엄마가 고정관념을 깨면 아이의 창의력은 자란다」(조석희 추천, 한숙경 편저, 값 6,000원), 「맛별이 부부의 아이교육 뛰어넘기」(이은희 지음, 값 6,000원), 「첫아기와 초보엄마」(김경혜의 위음, 값 6,000원), 「성교육 교과서」(동지출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국 편저, 값 4,000원)를 보내주셨습니다.

- 다우리어린이집과 하나·둘·셋어린이집에서 「다우리 아이들」과 「하나·

둘·셋 소식지」를 보내주셨습니다.

- 도서출판 논장에서 전국어린이서점이 원하는 「어린이책 목록」(값 3,000원)을 지난 8월에 100권 기증하셨습니다. 현재 약 50여권이 남아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선착순으로 우편료만 받고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저희 연합회로 예정담긴 귀한 책과 자료를 보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연합회 9월 활동일지 ♣

- | | |
|------|----------------|
| 9/ 2 | 집행위원회의 |
| | 여언복지위원회 |
| | 사회복지학 소모임 |
| 5 | 서울경인지역 대표자회의 |
| 6 | 편집회의 |
| 9 | 집행위원회의 |
| 11 | 조직논의 소위 |
| 12 | 서울경인지역 평교사분과회의 |
| 16 | 지방 평교사분과 회의 |
| 18 | 지역대표자 회의 |
| 19 | 교육연구부 모임 |
| 20 | 편집회의 |
| | 서경지역 책임교사분과회의 |
| 23 | 집행위원회의 |
| | 사회복지학 소모임 |
| 30 | 집행위 하루MT |

편집부에서

• 「우리네 아이들」의 발행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모두가 잘 쇠셨죠?

추석연휴와 「우리네 아이들」 인쇄기간이 겹쳐 다른 달보다 많이 늦춰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우리네 아이들」 구독설문조사서에 꼭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에서는 보dana 「우리네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미 정성껏 작성하여 보내주신 독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문조사서는 열심히 분석하여 12월 송년호에 실을 예정입니다.

아직 설문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늦었다 생각하시고 10월 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 자료회원 회비를 받았습니다.

1년 구독 : 이필숙, 이영희, 심영숙, 최인숙, 한국노총중부, 김영미, 김명숙
6개월 구독 : 신인순, 도은정, 김경순, 노선희, 석미경, 김영화

님의 자료회원 회비를 받았습니다.

구독기간이 마감되어 재구독을 원하시거나 구독신청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

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네 아이들」 계좌번호로 자료회원 회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후 연합회 사무실로 전화 확인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특히 본인명의로 아닌 타인명의로 단체명의로 송금하실 때에는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 여러분의 귀한 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삶이 담겨져 있는 글이나 소재를 받습니다.

보내주신 원고가 채택된 경우 작은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아끼시는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 회원배가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우리네 아이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자료회원 배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권해주세요.

취업청 동근 보습대에 이것저것 떠오르는
소원들을 띄워봅니다.
저토록 동글고 마냥 크게말 보이는
보습대이면 세상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줄 듯 싶습니다.
여러분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후련한 소원들, 많이 비셨지요?
소원성취를 바라는 보다는, 무언가 가슴
속에 꿈을 품고 산다는 것 자체가 삶의
기쁨일겁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려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합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영유아 교육의 이론 및 실제프로그램과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싣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 정기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뜻으로 좋은 내용, 알찬 정보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시면

- 1) 소식지 「우리네 아이들」을 매달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 「우리네 아이들」의 본 회에서 제작하는 각종 자료집 및 책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원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3) 본 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 신청은

- 1)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을 주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2) 우편발송시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분의 성함과 직업, 나이, 주소 및 전화 번호를 기입하시고 어떻게 「우리네 아이들」을 보시게 되었는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3) 신청후 회비는 다음으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 4) 송금 후에는 반드시 연락을 해주십시오.

다 음

신청접수: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우리네 아이들」편집부 알
☎ 275-8505~6

송금구처: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희연
(6개월 구독 13,000원 1년 구독 25,000원)

어린이집 · 놀이방의 상해, 화재보험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지역사회연구소연합회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Korea Daycare Information Research

놀푸른대리점

보육시설전문대리점이 충실히 안내합니다.

- 보육시설이 위험을 발견하고 방치대책을 세워 재산손해·인명손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보육시설이 가입해야 할 보험의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 각 시설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적절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안전한 보육환경, 적절한 보험선택, 수익금의 보육사업제투자를 목표로 출발했습니다.
- 보육사업 전문가로 구성되어 보육시설에 실속있는 도움을 드립니다.

아동사고! 5,775원으로 최고 1억 1천만원 보상에 작은사고에서 큰사고까지!

구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비고		
원아상해손해 (1인당)	사망, 후유장애 1,000만원 의료상비 100만원	2,850원	1인당 5,775원	배상책임보험 학교 경여자 특약요율의 85%적용		
배상책임손해 (1인당)	대인 1인당 1사고당 1억원 대물 1사고당 1,000만원	2,915원				
교직원상해손해 (1인당)	사망, 후유장애 1,000만원 의료상비 100만원	6,510원				
재산손해	전물 및 설거비용 (보험가입금액 100만원당)	화재손해 기본보험료 (화재요율 80% 적용)				
			1급	2급	3급	4급
		1등지	6,220원	5,890원	15,725원	34,225원
		2등지	7,200원	12,685원	33,315원	31,285원
		3등지	9,520원	15,215원	24,735원	39,030원
		4등지	11,305원	18,020원	29,280원	45,650원

〈놀푸른 대리점에서 추천하는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

상담전화

TEL. 271-1547~8
FAX. 271-1548
BP. 015-943-3954

놀푸른대리점은

어린이집 · 놀이방 정보록 PC통신으로 제공됩니다.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
보육시설의 보험가입과 상담관리를 위해 개설했습니다.